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046호

Tuesday, June 18, 2024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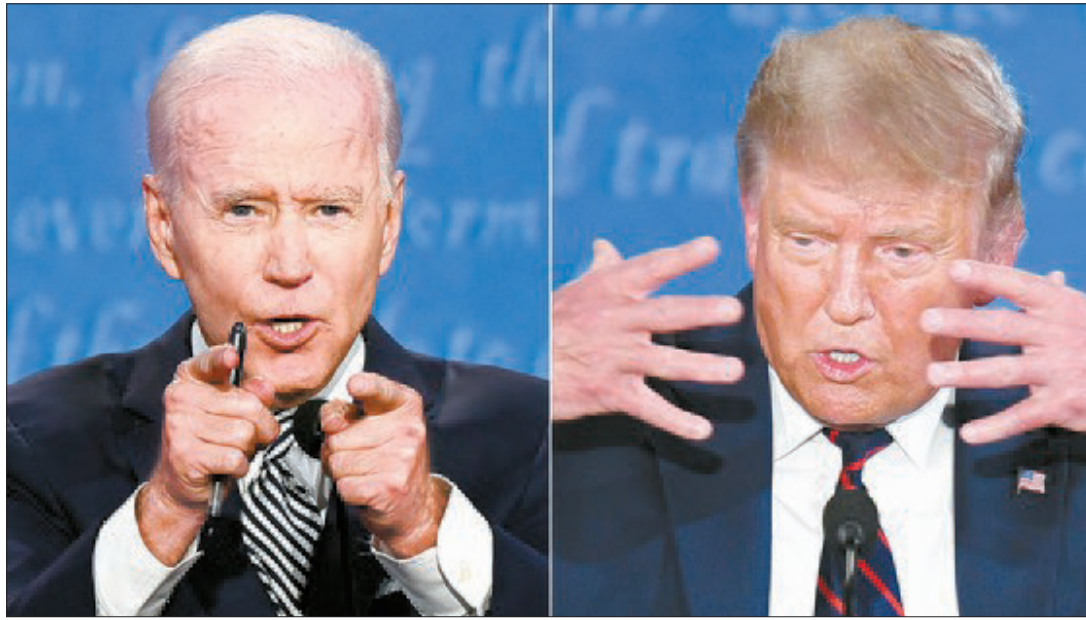
“진보, 바이든 패배 예감? 트럼프 집권 시 대책에 분주”

미국 진보 진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전제로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빙이거나 열세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 결국 ‘트럼프 2.0’ 시대가 오면 초강경 낙태·이민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고 진보 성향의 주정부와 단체가 일찌감치 대비에 나섰다.

1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캘리포니아·매사추세츠·뉴욕·오리건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5개 주는 먹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비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낙태약 허가를 취소하거나 낙태약을 다른 주로 배송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나온 조치다.

제이 인츨리 워싱턴 주지사는 “워싱턴주에 사는 여성이 트럼프 재집권 기간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미페프리스톤을 확보해 주 정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의 유통 기한은 5~6년이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도 우리는 관장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정부기구(NGO)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법 입국자 탄압 ▶낙태권 축소 ▶정치적 이유로 공무원



조 바이든(왼쪽)과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2020년 9월 29일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첫 번째 대선 토론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해고 ▶병력으로 시위 진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이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ACLU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엔 소송을 일으켜 ‘트럼프표’ 정책을 저지하거나 시행을 늦출 계획이다. 특히 트럼프가 내란법을 근거로 민주당이 우세한 도시에 연방정부 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고 내란법 관련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또 트럼프 정권이 세무조사로 압박할 것에 대비해 회계법인을 새롭게 고용했다.

NYT는 진보 진영의 이런 움직임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각 단체가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비하는 일은 대선 때마다 있었지만, 진보

단체들이 트럼프 2기를 대비하는 시기를 보면 과거보다 빠르고, 대비하는 범위도 유달리 넓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신문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낮고,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에게 뒤처진다는 점 때문에 진보 진영이 대비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진보·중도 단체들이 ‘트럼프 2.0’ 대비 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바이든의 재선 전망에 확신이 없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NYT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에서 바이든의 흑인 유권자 지지율이 2020년 대선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일간지 USA투데이가 서팩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9~13일 두 개 주의 흑인 유권자 각 500명에게 문의해 이날 공개한 여론 조사에서 바이든은 펜실베이니아에서 56.2%, 미시간에서 54.4%의 지지를 받았다. 이는 2020년 대선보다 각각 20% 포인트, 22%포인트 낮아진 결과다.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광고에 이달 말까지 5000만 달러를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CNN이 17일 보도했다.

2면 ‘바이든 패배 예감?’으로 이어집니다

귀가하려던 조나단 정 사냥감 몰듯 덮쳤다

당초 검시소는 “마약이 원인”
법의학 전문가들 “질식사 맞다”
정씨 짓누른 보안요원 처벌 없어
카지노측, 현장 CCTV 존재 부인

벨가든 지역 바이시클 카지노 주차장에서 비무장 상태임에도 보안 요원 다섯 명에 의해 살해된 조나단 정씨 사건을 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씨의 사망 원인을 두고 검시소와 법의학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이 엇갈리면서 향후 재판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 사건은 LA카운티세리프국이 수사를 진행했다. 물론 정씨의 죽음과 관련, 사건에 연루된 보안 요원들은 현재까지 체포 등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다. 이는 LA카운티 검시소가 정씨의 사망원인을 질식사 아닌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죽음으로 발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초기 검시소 보고서를 통해 발견됐다. 이번 사건을 맡은 원고 측 인디라 캐머런 변호사는 “당시 검시소 실험실 보고서에는 정씨의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검체 매트릭스에 분석적 어려움이 있었다(analytical difficulties with the specimen matrix)’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며 “이는 혈액 샘플 채취, 보관, 검사 방법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인데도 메스암페타민에 의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렸다”고 말했다.

이는 유가족이 정씨의 사인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법의학 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4면 ‘조나단 정’으로 이어집니다



1 조나단 정씨는 보안 요원들의 퇴장 요청에 순순히 응하며 걸어나갔지만 보안 요원들은 정씨를 계속 쫓아간다. 2 정씨를 주차장 구석으로 몰아간 후 당황해서 도망가려는 정씨를 순식간에 다섯명이 덮치고 있다. 3 정씨의 사망 당시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장면. [로펌 Cameron-Jones LLP 제공]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야기 플랜지링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김정은, 러시아 첨단 군사기술 대놓고 요구할 가능성”

푸틴, 오늘 24년만에 방북
북, 핵잠수함 개발 관련 기술 절실
“조·소 조약 수준 동맹 맺을 수도”
최악의 경우 자동 군사개입 부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19일 북한을 방문한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1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방문한다고 17일 발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이런 내용을 러시아와 동시에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000년 7월 19~20일 이후 24년 만이다.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것은 2019년 4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과 북·러 정상회담을 한 이후 9개월 만의 답방이기도 하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에 이어 19~20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 ‘선물 보따리’에 향후 한·러 관계는 물론 세계 안보 지형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양국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을 조약상 명문화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푸틴이 선을 넘을 경우 “사안별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윤석열 대통령 5월 기자회견)는 대러 관리 기조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은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조·소 상호방위조약)에 명시했던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되살아나는 건 한국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벌써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법률적 기초에 올려세우는 데” 합의했다고(1월 최설희 외

무상)고 분위기를 띄웠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조·소 조약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일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보다 노골적으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정은이 직접 제시한 국방 과업인 핵잠수함 개발에는 러시아의 관련 기술이 절실하다.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력의 ‘마지막 퍼즐’로 여기는 대기권 재진입 관련 기술도 김정은의 ‘위시 리스트’ 상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 보유국이나 우주 강국으로서의 독보적 지위를 중시하는 러시아가 관련 기술 이전에는 신중할 것이라 지적이 있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는 전후 중요한 잠재적 파트너인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북한과 협력에 신중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영교·이유정·박현주 기자

이철규 “어대한은 당원 모욕” 친윤·친한 당권경쟁 충돌

(여차피 대표는 한동훈)

친윤 “일부 언론서 몰아가는 프레임”
친한 “한동훈 대세론 형성된 걸로 봐”
안철수 “더 시급한 과제 집중” 불출마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한 당내 일각의 ‘한동훈 대세론’에 “당원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KBS 라디오에서 “어대한(여차피 대표)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란 말을 들어봤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프레임으로, 선거 결과는 투표를 열어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차기 대표의 조건으로 “당원의 중지를 잘 모으고, 정부와 협업하면서 정책을 성공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분이 적임자”라고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관계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최근 특정 언론사에서 보도했다가 갑자기 내려버린 보도가 굉장히 (당원 여론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당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 공감하기 어려운 분들이 특정 후보 주변을 에워싸고 있다”며 한 전 위원장 주변의 정체성 문제도 거론했다.

해당 보도는 모경제지가 지난 14일 밤 출고한 기사로, ‘한 전 위원장은 김경을 전 비대위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신지호 전 의원 등 외부 자문그룹으로부터 조언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전 위원장 측이 “오보”라고 주장해 기사는 한시간가량 지나 삭제됐다. 그새 진중권 교수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한 전 위원장과는 가끔 사회적 의제가 있을 때 텔레그램으로 논쟁하는 정도”라고 적었다가 기사가 삭제되자 해당 글을 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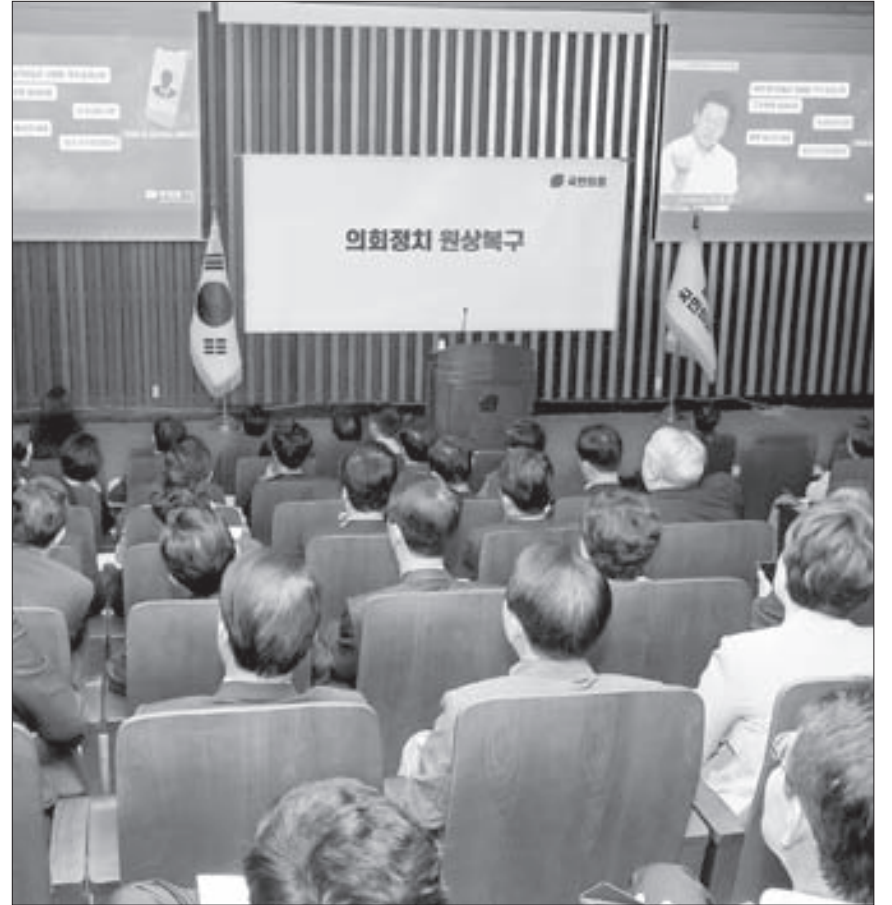
윤 대통령과 친한 것으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도 16일 페이스북에 “헌정사상 여권이 치른 총선 중 가장 큰 참패를 초래한 패자가 다시 당 대표가 되겠다고 나선다. 이런 무도하고 천박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고 적었다.

한 전 위원장 측도 반박에 나섰다. 신지호 전 의원은 17일 채널A 유튜브에서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며 “총선백서를 통해 한동훈 깎아내리기에 실패한 이철규 의원이 ‘총선백서 시전’을 하고자 한다”고 맞섰다. 이 의원의 정체성 언급에 대해선 “한동훈은 김경을 같은 좌파 출신에 쌓여있구나란 식의 윤·한 갈등을 부추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통해 당권 경쟁 구도를 ‘친한 대 비한’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 세력이 ‘비한’ 후보에 표를 몰아주는 식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 전 위원장 측은 ‘친윤 대 비윤’ 구도를 강조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7월 23일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하기로 확정했다. 안철수의원은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기정 기자



여당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육성파일 공개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듣고 있다. 이 자료는 지난 2018년 12월경 이 대표와 김진성 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의 통화 녹음본이다. [연합뉴스]

▶ 1번 ‘바이든 패배 예감?’에서 이어집니다.
바이든 캠프는 오는 27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첫 대선 TV 토론을 열을 앞두고 이번 광고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제목이 달린 30

초짜리 광고는 트럼프가 최근 ‘성추문 입막음 돈’ 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한편 지난 14일 생일을 맞아 78세가 된 트럼프가 자신보다 고령인 바이든(81)의 인지 능력을 조롱하다 백악관 주치의 이름을 틀리게 언급해 체면을

구겼다.
1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전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보수단체 터닝포인트액션 행사에서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바이든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라며 “바이든

은 꼭 나처럼 인지력 시험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사 로니 존슨을 아느냐”고 반문한 뒤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 로니 존슨은 (내 재임 기간) 백악관 주치의였는데 그는 (당시) 내가 가장 건강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고

자랑했다.
그러나 실제 트럼프의 주치의 이름은 로니 존슨이 아니라 로니 잭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현직에선 “바이든에 대한 실부른 공격이 일단 자충수가 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유진 기자

워싱턴 날씨 (°F)

19일(수) 91-69	22일(토) 97-77
20일(목) 92-72	23일(일) 99-79
21일(금) 95-73	24일(월) 95-74

6월 18일(화) 92~6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인텔리시스템의 3가지 장점

1. 저렴한 비용
2. 편리한 풀서비스
3. 믿을 수 있는 회사 (2002년 부터 지금까지)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lic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VA 의문의 감염증 속출... '원인은 불명'

버지니아 중부 지역에 위치한 최대 담수호 레이크 애나(사진)에서 수영했던 주민 25명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STEC)으로 입원했으나, 당국에서는 그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6곳의 담수 샘플을 채취해 STEC 감염원으로 알려진 이콜라이 균을 검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콜라이 균이 검출되긴 했으나 집단적인 STEC 발병에 이를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17일 2차 확인작업을 벌일 예정이지만, 발병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VDH는 "아직 정확한 원인균을 찾지 못했으며, 17일 조사에서

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개별 환자들이 섭취한 음식, 폭우로 인한 환경오염, 하수도 시스템 결절, 선박 화장실 오폐수 방류, 소와 말 등 분뇨 방류 등 여러가지 원인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서는 소와 말 등이 주변에 있는 담수호에서는 수영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더 나아가 관련 감염사고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민물 담수호에서의 수영을 삼가고, 화장실 불임을 본 이후 반드시 비눗물로 손을 세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체의 상처 부위를 통한 감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상처 부위를 민물에 노출시키는 행위도 위험하다.

김옥채 기자



와싱턴복지상조회 정기총회가 15일 열렸다.

워싱턴 복지상조회 정기총회 "상조회 40~60대 회원 가입 당부"

와싱턴복지상조회(회장 배용웅, 이하 상조회)가 지난 15일, 와싱턴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류응렬)에서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 및 제 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젊은 한인들의 회원 참여를 당부했다.

류 목사는 이날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시편 91:14-16 말씀을 인용해 장수하는 자의 행복을 언급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상조회 활동을 격려했다.

류 목사는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이 평화롭고, 영혼이 기쁜 날이 되기를 축복한다"면서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 말했다.

2부 순서는 배용웅 회장의 사회로 총회가 진행됐다. 총회에서는 2023년 결산 및 자산보고와 예산안 심의, 현황 보고가 있었으며 배용웅 회장

의 연임과 더불어 허정희 권사가 부회장 인준안을 확정하고 새로운 지도부 임기 2년을 시작했다.

곽은은 대의원은 "워싱턴 지역 40대부터 60대 들의 상조회 가입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장례비를 보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조회에 가입하는 신규회원은 가입비 100달러를 받고 있으며 회원이 별세할 때마다 회원 1인당 10달러를 각출해 유족에게 전달하고 있다. 상조회에 따르면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며, 회원이 된 지 6개월 내에 사망했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상조회 회원 수는 1,125명, 총 자산은 66만812.52 달러이다.

>문의: 703-999-9064

김윤미 기자

"인격 갖춘 어른 되도록 묵묵히 노력해야"

글로벌 어린이 재단 버지니아 지부(GCF VA, 김남숙 지회장)가 15일 월례회를 개최했다.

34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6월 월례회에서 김남숙 회장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 마음의 안테나를 켜지 말고 내려놓고, 버리고, 비우며 인격 갖춘 어른이 되자"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헌신이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묵묵히 봉사의 삶을 살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월례회에서는 허진 총무가 6만 달러 수익금을 거둔 골프대회 결산 결과 보고를 했고, 골프대회를 위해 수고한

GCF VA 지부 6월 월례회 6만 달러 골프대회 수익금 보고

이철희, 헨리 엠 프로와 봉사한 모든 이들을 대표해 허진 총무와 흥은영 친교부장에게 감사장이 전달됐다.

김윤미 기자

MD 대마초 사범 17만 명 사면 '논란'

MD 웨스 무어 주지사

웨스 무어(사진) 메릴랜드 주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마리화나 관련 전과자 17만5천여명을 일시에 사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같은 사면 규모는 메릴랜드 역사상 최대이며, 전국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마리화나 관련 최초의 주지사 사면권 행사로 기록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약 10만여명은 마리화



나 소량 소지 혐의라고 밝혔다.

무어 주지사는 앤소니 브라운 검찰총장과 함께 주의 회 의사당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가 이미 2023년 1월 마리화나 소

량 소지 혐의에 대한 처벌을 크게 약화

시켰고 그해 11월 주민투표에서 67%의 찬성으로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켰다"면서 "이제 비범죄화된 범죄로 인해 취업과 교육, 주거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주민들에게 갹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무어 주지사는 또한 "이같은 행위가 사회적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잘 실현시키는 법무 행정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브라운 검찰총장은 "마리화나 전과자 사면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문

제인 인종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사면 혜택은 인종과 관련없이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사면대상자는 유색인종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마리화나 전과범들이 사면되면 그동안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었던 '전과기록'이 삭제돼 혜택 받는다. 반면에 일반 주민들은 그만큼 일자리 구하기가 역설적으로 힘들어진 다. 또한 사면되는 마리화나 관련 전과자들 대부분은 흑인으로 '인종적 형평

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사면 대상자 중 상당수는 두번 이상의 전과를 지니고 있는데, 이들은 두번 이상의 사면 대상자가 된다. 현재 구치소와 교도소 수감자는 사면을 받는다고 해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지는 않는다.

메릴랜드 법무부와 교정국은 기록 삭제를 위한 태스크포스트를 구성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주정부는 전과기록을 삭제하려면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유니파제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8 ~ 7/12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타운 건물에 '한국정부 비방' 빔프로젝터 논란

LA한인타운에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문구들이 매일 밤 고층 건물 외벽에 빔프로젝터로 띄워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저녁 버몬트 애비뉴와 6가 인근에 있는 11층 오피스 건물에는 '김건희 #다올백#뇌물 수수#주가 조작'이라는 문구가 대형 빔프로젝터 이미지로 띄워져 있었다.

이 밖에도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등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문구들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어 벌써 5개월 넘게 매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눈살을 찌푸리는 모습이다.

루시아 정(70·LA한인타운)은 "이것을 본 미국인들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멀리 떨어진 미국에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국제적 망신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본지 확인 결과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진보성향의 한인 단체인 'LA촛불행동'으로 밝혀졌다.

단체의 대표는 올리비아 김씨로, 약 80명의 회원이 소속 되어 LA한인타운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및 후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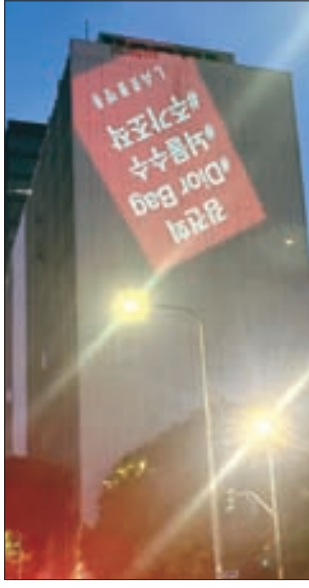
5개월째 대통령 비난 글 올려진보단체 'LA촛불행진' 이 주도 일각서 "한국 망신" ... 중단 촉구 주민의회에 시위 반대 청원도

지난 12일 LA한인타운 버몬트/6가 고층건물에 빔프로젝터 이미지가 띄워져있다. (왼쪽) 지난 8일 LA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도중 소란을 빚은 LA촛불행동 회원 1명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있다. (독자 제보)

마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모태인 LA촛불행동은 지난해 11월 창립총회를 열고 단체를 공식화했다.

주요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박신화 목사(평화의 교회)는 지난달 4일 한국에서 진행된 '88차 촛불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탄핵 이미지 빔을 위협을 무릅쓰고 LA 중심가 건물벽에 쏘아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LA총영사관 정문 앞에서 올리비아 김 대표가 나홀로 시위를 했던 것을 시작으로 수십명과 함께 지난주 토요일(4월 27일)까지 100차례 윤석열 퇴진 시위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이어 "민주정권을 지켜온 고국 민주시민들과 함께 해외동포로서 검찰 독재정권이 끝날 때까지 촛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빔프로젝터 시위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마다 LA총영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LA촛불행동의 시위

를 두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시위현장의 공공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인근 주민과 업주 86명은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워싱턴-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에 제출했다.

시끄러운 스피커와 피켓으로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아 자칫 사고가 날 수 있고, 버스 차선으로 내려오는 시위 자들로 위험하다는 내용이다.

시위 현장 인근을 자주 오간다는 주민 홍정수씨는 "좁은 거리를 막고 있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허가 없이 가로수에 배너를 걸어놓아 운전할때 사람이 잘 안 보여 위험하다"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8일(토)에는 시위대와 다른 주민들 간의 길거리 싸움이 벌어지면서 출동한 경찰이 일부 시위자에게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WCKNC 사무일 서 대의원은 "시위대가 유동인구가 많은 워싱턴에서 공공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주민들은 불만을 제기해왔다"며 "또한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의 얼굴인 영사관 앞에서 한나라의 대통령이 희화화되고 나쁘게 비치는 것에 대해 보기 좋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4일 LA촛불행동 김 대표는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시위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시위할 때 반대 단체와 부딪히면 소란이 생기지만 경찰에게 '평화 시위를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할 만큼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잘하고 있다며 격려해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80~90%"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

▶ 1면 '조나단 정'에서 이어집니다.

뱅크스 변호사는 "법의학 병리학자, 호흡기 전문의, 독물학 전문의에게 의학적 검토를 의뢰했고 이들 모두 정씨의 사망 원인을 '제압성 질식(restraint asphyxia)'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검시관의 초기 평가와 상반된 결과"라고 전했다.

제압성 질식은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신체적 구속을 해야 하는 법 집행 과정에서 초래된 사망일 경우 쓰이는 용어다. 정씨의 사망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유사점이 많은 건이 때문이다.

사건 당시 상황이 모두 녹화된 CCTV가 제때 공개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원고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카지노 측은 당초 이번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의 존재를 부인했었다. 이러한 내용은 정씨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동생(바네사 정)을 두고 남편(필립 터먼)이 카지노 측에 제기했던 소송장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 소장에는 "검시소 보고서를 통해 당시 영상이 있다는 내용을 파악하게 됐고 LA 카운티세리프국에 소환장을 보내 세리프국으로부터 영상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며 "카지노 측은 2021년 7월부터 최소 2023년 8월까지 정씨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바이시클 카지노는 한인 존 박

대표가 소유한 파크웨스트가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 카지노를 지난 2022년 4월에 인수했다. 정씨 사건은 박 대표가 카지노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다. 특히 원고 측은 이 카지노의 하썬 미나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미나이씨는 박 대표가 카지노를 인수하기 전부터 최고경영자를 맡아온 인물이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정씨 사건이 가주도박통제위원회(이하 CGLR)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바이시클 카지노의 은폐를 주장했다. 가주도박법 규정(section 12282) 및 연방법에 따르면 카지노 측은 사망 사건 등을 CGLR에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

에는 면허 박탈 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뱅크스 변호사는 이 소장에서 "카지노측은 정씨의 사망 사건을 CGLR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당시 카지노 측은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 법 집행 당국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카지노 주차장에서 훈련받지 않은 보안 요원이 한 남성을 질식사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 때문에 추가 조사를 받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씨 사건 발생 당시 카지노 측은 이미 연방 검찰 중부 지검으로부터 자금 세탁 및 은행 비밀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현재 한인 단체들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한인회는 현재 여러 한인 단체들과 함께 정씨 가족의 변호사와 면담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KYCC 스티브 강 대의협력 디렉터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정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바이시클 카지노 측에 지난 14일 이번 소송과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16일 오후 5시 현재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장영기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대선 투표 의사 유권자중 한인 최저

49%만 적극 참여...전체 78%
“두 후보 모두 싫다” 이유 최대

한인들의 오는 대선 투표 참여 의지가 주요 아태계 중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UC버클리 정부연구소(IGS)가 최근 거주 유권자 50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한인의 49%만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할 수도 있지만 덜확실하다’고 답한 비율은 36%,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응답은 11%였다.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실시된 이 여론조사에는 한인 154명이 응했으며 한국어 설문도 포함돼 1세대의 의견도 대거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응답자 중 ‘적극 투표’라는 대답은 78%에 달했으며,



20대가 60%, 65세 이상이 89%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 의지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인종적 차이도 뚜렷했는데 적극 참여 응답은 백인(90%), 라틴계(70%), 흑인계(66%), 아태계(62%) 순으로 나타났다.

아태계에서는 베트남계가 65%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계(54%), 한인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미국 태생의 82%가 적극 투표 의사를 밝힌 가운데 귀화 시민 중에서는 67%가 같

은 의견을 피력했다.

투표 기피 또는 포기 가능성이 높은 한인들(한국어 사용)에게 그 이유(복수 선택)를 물었더니 ‘두 대선 후보를 싫어한다’가 44%로 가장 많았고 ‘선거 결과가 조작될 수 있고 항상 신뢰할 수 없다’(34%), ‘후보들과 선거 이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23%)가 뒤따랐다.

응답자 전체 중 ‘선거 조작 가능성’을 이유로 든 경우는 18%에 불과했다. 아태계에서는 중국계(중국어 사용) 26%, 베트남계(베트남어 사용) 34%로 선거 결과에 대한 높은 불신을 반영했다.

투표지 기표 건수가 많은 경우 몇 개에 기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한인들은 37%만이 ‘모두에 기표한다’고 답해 전체 응답자(55%), 중국계(43%)에 비해 낮았다. 최인성 기자

워싱턴 특파원 칼럼

김치찌개 회동에 대한 뒤끝

좀 지난 일이긴 하다.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기자들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으로 초청해 김치찌개를 대접했을 때 이야기다.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며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언론이 중요하다’는 덕담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 자리 보전해 해줬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하더라도 앞의 맥락과 별로 다르지 않은 말이다.

윤 대통령의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린 것은 그간 미국 대통령들이 언론과 관련해 수시로 내뱉던 말들과는 결이 달랐기 때문이다. 속으론 역시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을지 모를 미국 대통령들이 기자들 앞에서 한 언론 관련 발언을 보면 대부분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론은 불의를 폭로하고, 나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준다.”(버락 오바마)

“언론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필수



김필규 워싱턴 특파원

적(로널드 레이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은 “언론의 자유는 자유 정부의 수호자며 독재를 막는 방아쇠”라고 했고, “언론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고 한 토머스 제퍼슨(3대)의 말은 이미 너무 유명하다.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맞아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들에겐 제재를 승인할 것”이라고 했다.

언론이 과거에, 어쩌면 지금도 누군가를 어떤 자리에 올리고 내리는 데 치중하고 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와 권위주의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뒤따른 부산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냥 출입기자들 불러 밥 같이 먹는 자리에서 가볍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윤 대통령의 언론관도 동맹인 미국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또한 기대해본다.

여권 온라인 갱신 재개

유효기간 10년 이상 여권
25세 이상 대상 시험단계



국무부가 2009~2015년 발급된 10년 이상의 유효기간의 여권을 소지한 25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여권 온라인 갱신을 재개했다.

13일 국무부에 따르면, 홈페이지(travel.state.gov/content/travel/en/passports/have-passport/renew-online)의 신청란은 매일 오후 1시 열

리며, 최종 발급까지 6~8주가량 소요된다. 국무부는 ▶2022년(10~13주 소요) ▶2021년(최대 18주) 대비 개선된 속도라 밝혔지만, 정확한 기간은 실제 사례가 늘어나야 확보될 전망이다. 새 여권은 우편 배달된다. 또한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신청 절차의 변동 가능성도 있다.

현재 신청자는 ▶접수일 기준 9~15년 된 여권 ▶이름·성별·생일·출생지

등의 변경 필요 없는 자 ▶접수일로부터 최소 8주가량 출국할 필요가 없는 자 ▶외교·공무 등의 특수목적 여권 대상이 아닌 자 ▶실물 여권 소지자 ▶130달러 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여권 사진을 촬영해 올릴 수 있는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선 홈페이지(mytravel.state.gov/s/)에서 먼저 계정을 만들어야 하며, 국무부는 유튜브 채널 안내 영상(www.youtube.com/watch?v=jUQLQiiLQkQ)을 시청하라고 권했다. 문의는 전화(877-487-2778)로 하면 된다. 강민혜 기자

에어인천, 아시아나 화물 품나

우선 협상 대상자 사실상 내정

에어인천이 에어프레미아와 이스타항공을 제치고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한국시간) 항공업계와 투자는

행(IB)업계에 따르면 에어인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내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은 오는 17일 이사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에어인천과 매각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이하

EU)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마지막 관문인 미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인수를 거쳐 화물사업 매각을 마무리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연말까지 지분 인수 및 화물사업 매각을 끝내는 계획이다. 화물 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의 작

년 매출은 707억4000만원으로, 본업장에서 경쟁했던 에어프레미아(3750억원), 이스타항공(1467억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편이다.

하지만 화물 물동량 측면에서는 국적 항공사 가운데 7번째로 많은 양을 운송하고 있다. 에어인천의 작년 화물 물동량은 3만9000톤(t)으로 에어프레미아(3만t), 이스타항공(9700t)을 웃

돈다. 에어인천은 그간 화물 사업 이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인수함으로써 현재 보유한 화물기 및 화주 네트워크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인천은 현재 자체 화물기 8대와 리스 3대 등 총 11대의 화물기를 운용하고 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관리 마이클 장

맞춤형 자산의 관리
자산과 함께라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방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주요업무

- ◆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 ◆ 취업 비자 (H1-B)
- ◆ 종교 비자 (R1)
- ◆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 ◆ 투자/교역 비자 (E1/E2)
- ◆ 학생 비자 (F1)
- ◆ 주재원 비자 (L1)
- ◆ 시민권 신청 (N-400)
- ◆ 가족 초청 이민
- ◆ 결혼 이민
- ◆ 추방유예 (DACA)
- ◆ 사면준비
- ◆ 이민국 인터뷰
-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 T. 703-916-1111 / 703-916-1215 | Fax. 703-563-6028
Jaewoon Lee & Associates, LLC |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천 길건너편) | E-mail : lee@jaelaw.com

트럼프가 맹공하는 바이든의 전기차 확대, 대선 쟁점 부상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거듭 비판하면서 전기가가 올해 대선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기가가 선거 이슈로 부각된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기차 '악마화'가 작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되돌리겠다고 "그런 차들을 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그는 지난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재선에 성공하면 바이든의 "처참한" 전기차 정책을 "없애겠다"고 말했다고 조시 홀리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이 WP에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이처럼 연일 "전기차 때리기"에 나서면서 전기가차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문화



전기차 시승하는 바이든 대통령

[AP 연합뉴스]

전쟁의 '총알받이'로 만들었다고 WP는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힘든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합주에서는 화석연료 산업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와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

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소재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WP는 소개했다.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5월 발

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최종 규정에서 중국산 배터리 부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자 이를 뒤집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자동차 산업의 목소리가 큰 오하이오를 지역구로 둔 브라운 의원은 공화당 세가 강한 몬태나주의 존 테스터 상원의원(민주)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를 뒤집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다.

화석연료 업계는 브라운 의원과 테스터 의원을 겨냥한 광고를 방영할 예정인데 이 광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곧 내연기관차 대부분을 금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이 정책을 비판하는 공화당과 화석연료 업계는 이를 내연기관차 금지라고 부른다.

WP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새 배출가스 기준을 준수하려면 전기차 판매를 크게 늘려야 하지만 그 과정이 점진적일 것이라며 "전기차 금지"라는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청(EPA)은 새 기준 효과로 전기차가 2030년까지 신규 승용차 판매의 30~5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기차가 정치 쟁점이 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 유권자들도 전기차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갤럽이 지난 3월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미래에 전기차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거나 '고려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민주당은 61%에 달했으나 공화당은 24%에 그쳤다.

미래에 전기가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답한 비율은 공화당 69%, 민주당 27%였다.

유럽 5월 천연가스 공급 순위 러시아가 2년만에 미국 추월

유럽 수입량 중 15%가 러시아산

지난달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산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자재시장 분석업체인 ICIS의 조사 결과, 유럽연합(EU)과 영국, 스위스,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된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규모는 해당 지역 수입량의 15%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미국산은 14%에 그쳤으며 이는 2022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순위가 바뀐 것은 러시아 제재에도 EU 국가들의 러시아산 LNG 수입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는 2022년 중반 북서 유럽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공급을 중단했지만, 우크라이나와 튀르키예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계속해왔다.

다만 지난달에는 미국의 주요 LNG 수출 시설이 정전 등의 영향을 받은 데다 러시아가 이번 달 예정된 유지보수를 앞두고 가스 수출을 늘리는 등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동유럽 국가들이 여전히 러시아산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추가로 낮추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다고 FT는 지적했다.

ICIS의 가스 분석 책임자 톰 마르첸만저는 "그동안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디커플링(분리)과 디리스크(위험제거)를 위한 모든 노력에도 유럽에서 러시아산 가스의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러시아가 여름에는 북해 항로를 통해 아시아로 LNG를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럽 수출은 줄어들 가능성도 높고 대신 미국 LNG 생산은 다시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운송 계약도 올해 말 종료돼 이 경로를 통한 가스 수출이 위협에 처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과 아제르바이잔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를 모색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한 수입량 140억㎥(입방미터)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FT는 덧붙였다.

카드리 심슨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달 일본을 방문해 아시아 수요를 위해 유럽에 필요한 LNG가 아시아로 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뒤 "우리의 가스 저장량이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가스 수요는 2021년에 비해 20% 감소해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전시내각 해체...주요 정책 ‘특별회의’서 결정”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8개월간 하마스와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온 전시내각을 해체했다고 일간 하레츠 등 현지 언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밤 열린 안보 내각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전시내각을 해체했다고 밝혔다.

하레츠는 전시내각이 해체되면서 가자지구 전쟁 관련 민감한 현안은 소수가 참여하는 '특별 회의'에서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안보 내각의 추인을 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 특별 회의엔 그동안 전시내각 참여를 희망해온 극우 성향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브리 국가안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이타마르 벤-그브리 국가안보장관(오른쪽) [EPA 연합뉴스]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내다봤다.

이스라엘 전시내각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선제 기습공격으로 전쟁

이 시작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11일에 구성됐다.

네타냐후의 정적이자 중도성향 야당인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가 비상사태 중 정부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전시내각에 합류했다.

네타냐후 총리, 요야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간츠 대표 등 투표권을 가진 3인의 각료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3인 등 총 6명은 그동안 하마스와 전쟁 과정의 중요 사항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네타냐후의 초강경 일변도 정책과 전후 가자지구 통치 계획 부재 등은 간츠 대표와 갈란트 장관 등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간츠 대표는 지난 9일 전시내각 탈퇴를 선언했다.

“성인 20% ‘롱코비드’ 경험...여자·심혈관질환자 회복 더뎠다”

미국 성인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감염 후 회복까지 보통 20일이 걸렸으나 5명 중 1명 이상은 3개월 내 회복하지 못하는 장기 후유증(롱코비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컬럼비아대 어빙 메디컬 센터 엘리자베스 C. 울스너 교수팀은 18일 미국 의학협회 저널 JAMA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서 코로나19 감염자 4천700여 명에 대한 분석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여성과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3개월 내 회복 가능성이 낮은 반면, 백신 접종자와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들은 3개월 내 회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팬데믹)을 지나 풍토병화되고 있으나 증상이 한 달 이상 사라지지 않고 몇 달이 지나도 지속되거나 새 증상이 나타나는 롱코비드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2020년 4월 1일~2023년 2월 28일 코로나19가 확진된 4천708명이 감염 후 회복까지 걸린 시간, 기존 질환 유무, 나이, 흡연,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보고한 14개의 코로나19 코호트 데이터를 분석했다.

코호트 참여자 평균 연령은 61.3세였고, 여성이 2천952명(62.7%)이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중앙값이 20일이었으나 감염자 중 22.5%는 90일 안에 회복되지 않는 롱코비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 기간에는 성별과 기존 심혈관 질환 유무, 백신 접종과 감염된 바이러스 변이 종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염 후 90일 내 회복 가능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았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질환이 없는 사람보다 16% 낮을 것으로 나타났다.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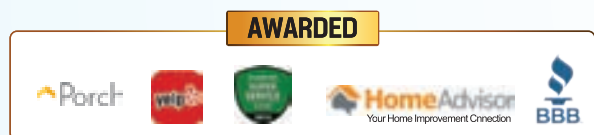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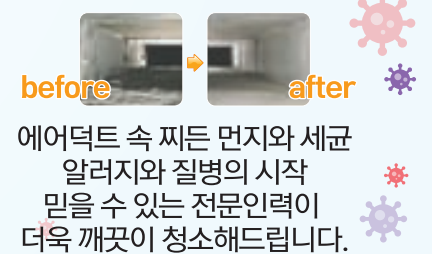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27
TH ANNUAL

북미주 KCBMC

Washington DC 대회

27TH ANNUAL KCBMC OF NORTH AMERICA CONFERENCE

|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사역 이야기 |

“ 계속되는 Life-on-Life 사역의 열매 이야기 ”

사도행전 20:24

JUNE 27- JUNE 29, 2024

FALLS CHURCH MARRIOTT FAIRVIEW PARK, FALLS CHURCH, VA

북미주 KCBMC 총연회장 한기덕 / 동부연합회장 김형주

준비위원장 강고은 240-281-7949

등록 : 2024.KCBMC.org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객원교수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



Todd Hopkins

Entrepreneur Business Coach
International Best-Selling Author
Founder and Executive Chairman, Office Pride
www.toddhopkins.com



통장도 장롱도 다 털렸다... 범죄 타깃 되는 노부부

서울 용산에 사는 A씨(60)는 지난해 10월 치매 등을 앓는 부모님 옷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불과 얼마 전 옷장을 정리할 때 봤던 모피코트와 명품 백 등이 사라진 것이다. 온 집안을 뒤졌으나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옷뿐이 아니었다. 귀금속과 장신구도 상당수 자취를 감췄다.

부모님은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가사도우미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왔다. 이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두 사람의 소행이라면 계속 부모 곁에 둘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은 암수술을 한 모친의 낙상에 대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집에서 넘어져 뼈가 부러졌으나 아무 얘기를 앓는 바람에 며칠이 지나서야 골절상임을 확인한 일이 벌어졌다. 가족들은 어머니의 동선을 따라 CCTV를 설치해 나중에라도 사고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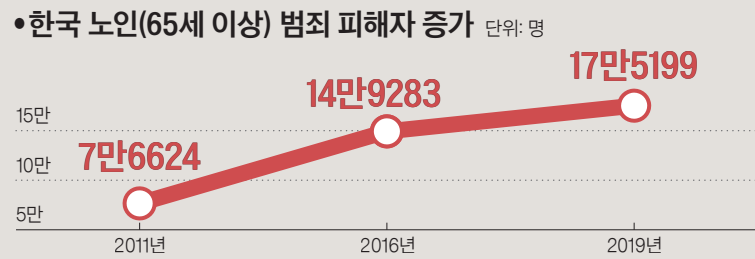
기억 흐려지자 오랜 신뢰 배신

이 CCTV에 옷과 귀금속이 사라진 단서가 잡혔는지 확인해보기로 했다. 녹화된 동영상을 재생해보다가 자식들은 깜짝 놀랐다. 거기엔 도우미와 간병인의 아한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옷장에서 모친의 옷을 꺼내 자신에게 대보는가 하면 옷을 걸어두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기록됐다. 마루 장식장에서 뭔가를 꺼내는 장면도 잡혔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 뒤 간병인이 마루 장식장을 열고 뭔가를 집는 듯하더니 부엌 뒤쪽으로 사라졌다. 모친이 화장실에서 나오기 직전 간병인은 부엌에 다시 나타나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식들은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단 범행을 부인했으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나왔다. 부모 집에 있던 주방 도구 등이 이들의 집에서 발견된 것이다. 가족들이 분실 품목을 파악한 결과 모피 코트와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반지 등 최소 1억 59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A씨는 “믿고 맡긴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간병인은 일부 범행을 시인했지만, 도우미는 “할머니가 버리라고 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도우미의 집에서 물건 몇 개를 훔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 대상 범죄가 비상이다.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면서 이들이

치매 부부 돌보던 도우미·간병인·운전자 절도 혐의 수사 각각 물품 훔치고 통장서 역대 현금 인출... “믿고 지냈는데” 낙상 방지용 CCTV에 범행 장면 담겨 발각, 경찰 수사 중 “아들 장기 떼내 판다” 협박에 1850만원 건넨 전직 교사도



증거 나오자 “나한테 준 것”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품목이 많고 액수가 크지만, 노인 끼리 사는 집에서 물건 몇 개를 훔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 대상 범죄가 비상이다.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면서 이들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범죄 피해자는 2011년 7만6624명에서 2019년 17만5199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노인들은 사람들의 말을 쉽게 믿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점을 이용한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박광우 ‘노인범죄와 노인의 범죄피해, 범죄주

려움에 관한 고찰’). 노인들은 범죄를 당하고도 “자녀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될 것을 걱정해 경찰에 진술 자체를 꺼린다”는 것이다. 실제 범죄 피해는 훨씬 크다는 얘기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한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피해액은 모두 34억 달러(약 4조7000억원)에 달한다. 60세 이상 사기 피해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그중 기술 지원 사기(Tech support scams)가 1만76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선 노인 범죄 예방책 마련

기술 지원 사기는 보이스피싱과 흡사하다. FBI가 지난해 7월 공개한 수법을 보면 사기범은 합법 업체를 가장해 전화와 문자·이메일로 노인에게 연락한 뒤 환불을 해주겠다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다. 이후 은행 계좌로 너무 많은 돈을 보내서 큰 문제가 생겼으면서 현금을 택배로 특정 편의점에 보내도록 하는 수법이다.

이처럼 날로 진화하는 범죄 수법 앞에 노인은 속수무책이다. 서울대 교수 B씨(54)는 지난해 2월 15일 경기도 용인에 사는 어머니와 계속 연락이 안 돼 걱정이 커졌다. 집 전화와 휴대전화가 모두 불통이었다. 함께 아버지 병원에 가기로 한 터여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집은 비어있고 스포츠센터에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들어갔다.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서 신호가 잡혔다. 긴급 출동한 경찰이 어머니를 만났으나 황실수설하며 대담을 회피했다. 남동생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하자 비로소 사실을 털어냈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거였다. 범인은 집으로 전화를 건 뒤 “아들이 빚을 안 갚아 납치했다”며 “당장 현금을 안 찾으면 죽이고 장기를 팔겠다”고 협박했다. 아들의 우는 목소리도 들려왔다. 범인은 집 전화의 수화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휴대전화로 통화하자고 요구하면서 전화가 끊기는 순간 아들을 살해한다고 했다. 지시대로 통화를 이어가며 집에 있던 돈과 인근 은행 창구에서 찾은 현금까지 1850만원을 마련했다. 전화 통화를 하며 인출하는데도 은행 직원은 현금을 내줬다.

경찰관계도 피해 숨긴 노인

지시대로 인근 초등학교로 가자 한 여성이 나타났고 범인은 “아무 말 말고 돈만 건네라”고 했다. 이후 “아들을 학교로

보낼 텐데 그사이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면 아들은 죽는다”고 했다.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숨긴 건 그 때문이었다. 아들이 나타나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교사 출신으로 매사가 철저한 모친이지만 노인의 심리를 노린 사기범 앞에서 무너졌다. 지금도 가족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미스터리다.

박외병 동서대 경찰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피해자뿐 아니라 범죄자도 늘고 있다”며 “초고령사회로 가는 만큼 노인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노인 학대 및 실종 예방 정책이 청소년보호와 담당 업무로 소개돼있다.

“경찰에 노인 전담 부서 뒀어”

노인 범죄 피해가 증가하는데도 이에 대한 실증 연구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심혜인 ‘노인의 범죄피해 예측요인 연구’). 논문에 따르면 미국은 미 연방에 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보호국이 개발한 ‘머니 스마트 프로그램’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집배원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상태를 체크하는 훈련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 CCTV를 달고 가족이 평소와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체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노인의 정신이 쇠약해지면 가까운 사람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A씨 형제들은 부모의 도난 사실을 안 직후 수십 년간 부친을 도와 온 운전기사에게 연락해 아파트 CCTV 영상 확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반응이 석연치 않았다. 이후 부친의 통장에서 거액의 현금이 반복적으로 인출된 사실을 알아냈다. 경찰 수사 결과 운전기사의 소행이었다. 가족의 충격은 더 컸다. 노부부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떨어지자 이들을 돌봐 온 세 명이 모두 금품에 손을 댔셈이다.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쯤 사건이 발생한 용산의 아파트를 찾아가 봤다. 현관에 들어서니 신체를 지팡이가 위한 장치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침대와 화장실에도 노인용 보조 장치가 붙어있다. 범행을 밝혀낸 CCTV가 마루 천장에 달려있다. 낙상 파악을 위해 달았기 때문에 노인의 동선을 향해 있어 귀중품을 보관한 옷장이나 부엌에서 도우미 방 창문으로 이어지는 통로 등은 사각지대다. 기력이 쇠퇴하는 노인들을 노리는 범죄자에겐 사방에 빈틈이 너무 많다. **강주안 논설위원**

승경호 부동산

Realtor
K. Soung

- ✓ 가치 극대화 및 성공적인 매각 목표
- ✓ 입주전 전체적 통합 서비스 제공
- ✓ 순조로운 임대차 계약 및 갱신 업무
- ✓ 최적의 입지와 컨설팅 제공
- ✓ 최신 부동산 시장 동향 파악 및 분석
- ✓ 맞춤형 주택 매입과 최고의 주택 매각

승경호 추천 매물

<p>스시 식당</p> <p>알링턴 버지니아, 판매가: 50만 1900 SF, Rent 8900 SF 연매상 \$1,058,000</p>	<p>버지니아 상가건물</p> <p>3백10만불, 1.8에이커 Cap Rate 7%, 임차 5개 연순수의 \$218,000</p>	<p>디시 유명 델리</p> <p>주인 없이 운영 판매가 55만불 정부입주 건물 1층 순수의 = 주인운영 없이 1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2만불수입 렌트 \$7200+Cam, 2,300SF 몽고메리카운티, 메릴랜드 조건부임대계약 50만불</p>
<p>식당 자리</p> <p>4,675 SF, 임대 메릴랜드 락빌</p>	<p>사무실</p> <p>에난데일, 1200 SF 사무실, 병원적합, 35만불</p>	<p>Beer & Wine Shop</p> <p>주1만8천불수입, 렌트 \$7200 2400 SF, 알링턴 버지니아 조건부 임대계약, 35만불</p>	<p>상가</p> <p>맥클린, 단독건물 4백5만불, 6,000 SF</p>
<p>창고</p> <p>전기시설 완벽한 창고자리임대 9000 SF, 헌드, 버지니아</p>	<p>사무실</p> <p>워싱턴 디시, 교통 좋은곳 사무실 임대하실 회사찾습니다</p>	<p>콘도</p> <p>방2개, 화장실2개, 차고1개 있습니다 메트로근처, 워그먼트 관리해드립니다 매매가 49만불</p>	<p>상가</p> <p>비엔나, 버지니아 상가매매 연순수의 52만불, 8백만불</p>
<p>단독 건물</p> <p>에난데일 최고의 상권, 2500 SF 식당, 카페, 맥주 전문점하면 좋은 자리 임대 문의 바람</p>	<p>상가</p> <p>발티모어상업건물 (임대수입) 1층식당+2층+3층아파트, 1백1십만불</p>	<p>이 자리에 광고받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p>	

주 택 투자 컨설팅 주재원 랜딩 서비스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사업 체 공장/사무실/ 창고 설립

703.928.5990 승경호

k@dwellwashington.com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ONE REALTY ONE GROUP CAPITAL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처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동네병원 휴진신고 4%뿐... 맘카페선 “쉬는 병원 불매운동”

개원의들 '반나절 변칙휴진' 가능성
정부, 전국 병원에 업무개시명령
환자단체 '환자가 정부 압박도구나'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경기도 수원(왼쪽 사진)과 전남 나주시의 한 의원 입구에 휴진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뉴스]

서울대병원이 17일 휴진에 나선 데 이어 전국 동네 병·의원 일부가 18일 하루 휴진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벌인다. 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 교수 일부도 동참한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18일에 이어 다음달 4일부터 최소 일주일 휴진을 결정했다.

“정부는 끝내 의료계의 진심을 외면하고 무참히 거부했다”며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적절한 몸부림”이라고도 했다. 또 “정부 폭정을 막을 방법은 단체행동밖에 없음을 국민들도 이해해 달라”며 “의

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응원해 달라”고 했다. 의협의 집회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대로에서 '정부가 죽인 한국의료, 의사가 살려낸다' 주제로 열린다. 개원의와 봉직의, 의대 교수 등 전 직역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터넷 의사 커뮤니티에는 휴진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글쓴이는 “하루 쉬면 손해가 막심하지만 그냥 진료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돈 몇백에 업무정지 나와도 감수하기로 했다”고 썼다.

보건복지부가 13일까지 받은 휴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전국 3만6371곳의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1463곳(4.02%)이 휴진을 예고했다. 2020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에 개원의 참여율이 10%대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일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휴진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2020년과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휴진 신고를 안 하고 문을 닫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휴진율은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의협은 정부가 내린 사전휴진신고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문을 연 뒤 한 시간 만에 닫는다면, 오전만 쉬는 방식으로 변칙휴진에 나서겠다는 곳도 있다.

정부는 17일 지자체를 통해 전국 3만여 동네 병·의원에 등기우편으로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의거해 즉시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달라”는 내용의 업무개시명령을 발송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당일 오전 9시에 문자로 일괄 한 차례 더 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후 전화 등으로 휴진 여부를 파악하고 휴진율이 30% 이상이면 현장에 나가 체증하고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고사금지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또 이날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환자단체는 “환자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에서 집단휴진에 대해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역 맘카페에선 휴진 병·의원 리스트를 공유하며 “언제라도 곤란한 상황을 안 겪으려면 이참에 병원을 옮겨야겠다” 등 불매운동 목소리도 나왔다.

황수연 기자

법사위가 '이재명 방탄 로펌' 으로... 위원장까지 판사 공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변호하는 로펌으로 전락하고 있다. 여당이 보이콧한 법사위 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위원들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판결을 일제히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이런 모습은 더 노골화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쟁점 법안 속도전에 나설 줄 알았던 민주당 법사위원이 이 대표 변호에 올인하고 있다”(전직 민주당 중진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재판장이 검찰 수사 눈감아 준 격”

특히 14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이 대표 변론장을 방불케 했다. 민주당 의원 6명이 입을 모아 이화영 1심 재판부와 검찰을 문제 삼았다. 박군택 의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통화한 것을 뺀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화영 판결문에) 해냈다”며 “둘이 만난 적도 없다는 것을 검찰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은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으로 가던 수사가 갑자기 특별한 증거도 없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을 거론하며 “재판장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눈

감아 준 격”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 신진우)에 배당된 것도 문제 삼았다. 이견태 의원은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만행”이라며 “일주일도 4일씩 재판받게 하는 점지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독단적인 판단으로 유죄를 선고한 신진우 판사가 백지 상태에서 (이 대표를) 재판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성운 의원은 특정 검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2019년 울산지검 회식에서 특별비 술판을 벌인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로 회유·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다. 장경태 의원은 “이 대표 대북 송금 사건 기소는 ‘쫓개기 기소’”라고 했다. 이날 약 5시간 동안 진행된 법사위 회의가 끝나자 여당에선 “법사위 회의가 아니라 이 대표 ‘로펌 변호인단’ 회의 같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4·10 총선 승리 직후 법사위원장 사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각종 특검법과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이유였지만,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 포석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법사위원의 면면만 봐도 애초에 이 대표 각종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뒀을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갓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이 농후하다”며 “실제 법사위 내부에서 이 대표 방어를 위한 역할 분담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서영교·장경태 의원 등 친명 지도부 법사위원들은 당 상층부에서 이 대표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재판부 문제를 설파하고 있다. “사심이 개입됐는지 모를 재판장은 회피·제척돼야 한다”(정청래, 17일 최고위)고 신진우 부장판사를 공개 저격하는 식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비교적 대중에게 잘 알려진 세 의원이 최고위에서 이 대표 방어 논리를 펴면 개별 당 강성 지지층이 검사와 판사를 공격하며 호응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

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의혹을 변호한 이견태 의원과, 이 대표의 대장동·위증교사 의혹을 변호한 박군택 의원은 대북 송금 의혹의 대응 논리도 설계하고 있다는 평가다.

야권 관계자는 “14일 이 대표가 언급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매수 의혹을 전략적으로 부각한 것이 두 의원”이라고 전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5월 재판에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고 증언했는데, 민주당은 그가 쌍방울로부터 매수당해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의원은 지난 12일에는 표적 수사로 의심되면 영장 청구를 가각하는 ‘표적수

사 금지법’을 발의해 ‘이재명 맞춤형 입법’ 논란도 일었다.

야권서도 “이 대표 수사 염두에 뒀을 것”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과 민병 출신 김용민 의원은 앞선 지난 국회에서 각종 쟁점 법안 추진에 앞장서며 이 대표를 뒷받침한 강성 친명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2021년 8월 이른바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을 겨냥해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GSGG는 ‘개××’라는 욕설을 뜻한다. 김용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앞장섰다.

이처럼 민주당 법사위원이 노골적으로 이 대표 지키기에 앞장서자 국민의 힘은 공세를 취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 민주당 법사위가 나서고 있는데, 정상적 국회의원 공당이라고 볼 수 있나”라고 했다. 검사 출신 광규택 수석대변인은 “우려했던 이재명 방탄이 현실화됐다”며 “향후 ‘이재명 사법 파괴 특위’ 등에서 민주당 법사위의 행태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각종 법안 처리의 관문으로 국회의 상원에 비유되는 법사위를 로펌기구처럼 악용하는 것은 국회를 사적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국희·강보현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십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액트지오 발표 검증 필요” 지적에... 정부, 교차검증도 고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중해 유전-가스전 후보지 개발과 관련한 최대 쟁점은 정부가 제시한 ‘탐사 시추 성공률 20%’다. 구멍을 5개 뚫어 바닥물 아래 땅속을 들여다보면 구멍 1개에서 석유-가스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후 채산성(採算性)이 맞다면 상업 생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탐사시추 성공률 ‘20%’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을까.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업계에서 표준으로 통용되는 ‘지코스(GCOS, Geological Chance Of Success)’ 공식을 활용해 계산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국에 앞서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가이아나에서 탐사시추를 할 때와 같은 지코스 공식을 썼다.

량인 것으로 봤다. 그럼 4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확률은 ‘10분의 7’을 4번 곱한 값으로 대략 20%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석유공사도, 석유공사에 자문한 미국 석유-가스 개발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도 20% 수준을 제시했다. 21세기 최대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로 평가되는 가이아나 프로젝트 때 성공률은 16% 정도였다. 정부가 이번 프로젝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유전-가스전 후보지 7곳을 포함한 6-1광구-8광구 내에서 3차례 탐사시추를 진행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당시 성공률은 10%가량이었다. 정부는 실패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추가 간접조사로 얻은 자료 등을 종합해 분석해 보니 이번 탐사시추 성공률이 약 20%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대왕고래’ 탐사시추 성공률 20% 어떻게 계산됐나

구분	역할	존재 가능성
근원암(source rock)	석유-가스 생성	약 70%
저류암(reservoir rock)	저장	약 70%
덮개암(seal rock)	빠져나가지 않게 함(암석)	약 70%
트랩(trap)	빠져나가지 않게 함(구조)	약 70%
근원암·저류암·덮개암·트랩 전부 존재 가능성		약 2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배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5배 가까이)은 탐사시추 결과에 따라 위 로든 아래로든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탐사시추 전 단계인 물리 탐사를 통해 추측된 수치인 탓이다. 물리탐사는 사람 몸에 엑스선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 조직검사처럼 직접 땅을 파보는 탐사시추보다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설명을 믿는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충분히 시도할 만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신뢰성 논란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대표가 서 있다. 액트지오가 사실상 1인 기업이고 세금 체납 전력 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기술 전문성과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항변이다.

의명을 요구한 국내 자원개발 대기업의 한 임원은 “에 대통령이 이 시점에 발표했는지 가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아브레우 박사가 심해지역 탐사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물론 전문가라고 그 말을 다 믿을 만한 건 아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액트지오의 자문 내 용을 다시 공개 검증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어느 광구도 심해 탐사와 관련된 조사 자제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며 “데이터 자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아브레우 박사가 심해지역 탐사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이 커

지자 산업부는 교차검증을 해 보는 것도 선택지에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선례가 없어 난처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기업 철수에 “인수합병이 원인”
 예산 심의권을 쥐고 있는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투명한 사업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안보 관점에서나 해외 투자 유치 전략 측면에서 정보 공개에 한계가 있다. 정부의 사업 계획 발표 시점이 다소 빨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의명을 요구한 석유-가스 개발업체 관계자는 “적어도 구체적인 매장량이 확인되는 탐사시추 완료 이후 발표를 했다면 각종 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왕고래) 개발 전략회의를 오는 21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석유공사 경영진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해외 투자 유치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해외 자원을 들여오면 탐사시추 등에 필요한 비용을 해결해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해외 자원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규모로 들여오느냐에 따라 국부 유출 우려가 나올 수도 있어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세종=김민중 기자

정부 “액트지오 세금 체납, 기술과 는 무관”
 쉽게 설명하면 석유-가스를 발견할 수 있는 필수 조건 4가지 중, 이 4가지를 전부 충족할 확률을 구하는 구조다. 조건 4가지는 ▶석유-가스를 생성하는 암석인 근원암(source rock) ▶저장하는 암석 저류암(reservoir rock)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암석 덮개암(seal rock)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층 구조인 트랩(trap)이다.

정부는 조건 각각이 충족될 확률을 모두 70%(10분의 7)가

TK신공항 인근에 ‘4조 규모’ 소형원전 짓는다

대구경북신공항 인근에 조성되는 군위 첨단산업단지에 소형원자력발전소(SMR) 건설이 추진된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7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정사에서 ‘680MW(170MW×4모듈) 소형모듈 원자로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첨단산업단지 내에 SMR 건설을 위해 부지 적합성·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SMR 상용화 노력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관련 사업비는 4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전액

민자로 진행한다. 대구시는 한수원, 민간 건설사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를 2026년까지 마무리하고 2028년 표준설계 인가를 받은 뒤 2033년 상업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국내 원전과 달리 내륙에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MR은 한 용기에 원자로를 비롯해 주요 설비를 일체화한 설비다. 작고(Small), 공장서 부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Modular)해 건설할 수 있는 300MW 이하급 원자로(Reactor)다. 대형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제11차 전력기본계획안에 SMR 도입 계획이 발표된 이후 구체적으로 건설이 추진되는 첫 사례다. 대구시가 SMR 건설을 추진하는 건 신공항 물류 기반을 강화하고 산단 입주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SMR 개발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도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없다. 또 경북 출신 임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구 일각에선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SMR 유치 반대 목소리도 있다.

대구=백경서 기자

고2 학생 17% ‘수학 기초학력 미달’... 2017년 이후 최대

지나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고2학년 학생 6명 중 1명이 수학 교육과정용 거의 이해하지 못한 ‘기초학력 미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전수에서 표본집단(3%)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래 최고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7일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 중3과 고2 학생의 3%를 표집해 국어·수학·영어 학력 수준을 진단하는 시험이다. 평가 결과는 1수준(기초학력 미달)~4수준(우수)으로 구분한다. 기초학력 미달은

교과 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을 뜻한다. 수학에서 1수준 학생 비율은 2017년 9.9%에서 지난해 16.6%로 상승했다. 국어 역시 같은 학년 내 1수준 학생이 꾸준히 늘었다. 2018년 3.4% 이후 5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엔 8.6%를 기록했다. 다만 영어는 1수준 비율이 8.7%로 전년 대비 소폭(0.6%포인트) 감소했다.

중학생의 경우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못 미쳤다. 중학교 2학년 학생 중 국어 1수준 비율은 지난해 9.1%를 기록했다. 전년도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019년 4.1%보다는 두 배 이상이

다. 수학 1수준 학생 역시 지난해 13.0%를 기록해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었지만 2017년 7.1%보다는 여전히 높다.

‘도농 격차’도 여전했다. 모든 과목에서 대도시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읍·면 거주 학생보다 낮았지만, 수학 과목에서 실력 차가 두드러졌다. 중학생은 대도시(10.6%)보다 읍·면(17.9%)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7.3%포인트 높았다. 고등학교도 대도시(14.3%)와 읍·면(18.5%)에서 4.2%포인트 격차가 났다. 또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지원·이가람 기자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끌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Chris Shin Esq.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부동산 최고의 권위!

대표 정희수
703.477.3114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Principal Broker 세련된
703.244.6526

Hyundai Realty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REALTOR

“의사 1000여명, 고려제약서 리베이트”… 수사 확대 검토

경찰, 리베이트 ‘구조적 문제’ 의심
“수사 상황 따라 피의자 더 늘수도”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 1000여 명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 수사가 다른 제약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렸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확인이 필요한 대상의 의사를 기준으로 1000명 이상 확인했다”며 “(이들이) 현금, 가전제품 등 물품, 골프 접대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김기현)는 고려제약 대표 등 임직원이 자사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의혹 대상 의사 일부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의사 14명과 고려제약 임직원 8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들이 최근 3~4년 사이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가 더 늘어날 수 있고, 추가 압수수색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 게이트’로 비화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불법 리베이트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제약사는 중외제약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중외제약에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인 지난 2014년 100만~3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혐의로 1990여 명의 의사들에게 ‘경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고려제약 외 다른 제약 회사로 불법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조지호 청장은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을 여러 곳 발견했다”며 “한 제약회사의 문제로 보기에 부적절해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할 경우 필요한 돈을 빼 오는 과정에서 세금 신고 누락 등이 발생한다”며 “경찰 자료에 한계가 있기에 세무당국과의 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찬규 기자



신윤복의 그림을 찾습니다

1979년 만에 국내로 돌아온 해원 신윤복의 그림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고사인물도(故事人物圖)’를 소장하고 있던 후암미래연구소는 최근 서울 종로구청에 도난 신고를 했다. 신윤복이 1811년 그린 이 그림은 그해 조선통신사 파견 때 일본으로 갔다가, 개인이 사들여 2008년 다시 국내로 돌아왔다. [연합뉴스]

‘대선개입 허위 인터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검찰 “대장동 책임 돌리려 기획보도”
김씨, 신씨에 책값 위장 역대 금품
신씨엔 공갈 혐의도 추가 적용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부)은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중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를 주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씨가 김씨와 공모해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허위 인터뷰를 하고 (2021년 9월 15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또 신씨가 이 같은 허위 보도의 대가로 김씨로

부터 1억 65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자신이 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이하 혼맥지도)의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의혹을 받는 인터뷰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로 불렸던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이 인터뷰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과 박영수 전 특검을 잘 안다며 “조우형이 대검 중수부에서 윤석열을 만났다… 윤석열이가 ‘내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박○○(김사가) 커피 주면서 몇 가지들(질문)하더니 (조우형을) 보내 주더라.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라고 말했다. 당시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를 근거로 TV토론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

줬나”라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장동 의혹의 책임을 이 대표에게서 윤 대통령으로 돌리려 허위 인터뷰를 기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에게는 허위 인터뷰 의혹과 별도로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2022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혼맥지도』를 건네고 수백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후 정 전 원장이 “책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계약을 어기고 청와대 인사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책값을 주지 않으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겠다”고 압박해 5000만원을 더 받아냈다는 것이다.

신씨와 김씨는 자신들이 주고 받은 돈은 인터뷰 대가가 아닌 책값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수민 기자



김만배

신학림

“아버지 박수근 혼 서린 용산에 표지석 세웠으면”

‘국민화가’ 박수근 아들 박성남
“아버지가 무명시절 전시회 연 곳
생계 위해 미8군에 초상화 팔기도”

1953년 어느 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짐마루에 앉은 다섯살 박성남 군은 종이 꾸셨지만 짝꿍 않고 앉아 있어야 했다. 아버지인 화가 박수근(1914~65)이 자기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6시간 동안 그린 초상화 속 성남 군의 표정은 살짝 뾰로통하다.

당시 박수근이 아들의 초상화를 그린 데는 나름

로 이유가 있었다. 강원도 출신인 그는 6·25 전쟁 발발 후 먼저 서울에 와 있었다. 부인 김복순 여사와 당시 네 살이던 성남 군은 탱크가 지나간 자리를 따라 나중에 합류했다. 우여곡절 끝 서울에 당도한 부인과 아들을 만난 박수근은 아들의 초상화를 그렸다.

이제 76세가 된 박성남 옹은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를 찾아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가 그린 건 한국의 모든 아들이었다. 전쟁 와중에 헤어지고 다시 못 만나는 가족이

얼마나 많았나”고. 그는 이어 “(51세로 작고한) 아버지보다 이제 내가 나이가 훨씬 많아졌다”며 “아들로서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용기를 내 찾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용산에 박수근을 기리는 표지석을 하나 세우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왜 용산일까. 그는 “아버지가 힘들었던 시절, 용산 미군 기지 도서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게 (화가 이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고, 우리 가족의 생계에도 큰 역할을 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용산구청 등의 관계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창신동 시절의 박수근 가족. 박수근(오른쪽)은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하모니카를 불고 했다. 아들 박성남 옹은 회고했다. [중앙포토]

실제로 박수근은 용산과 인연이 깊다. 그는 무명시절 생계를 위해 미8군 PX에서 초상 화가로 일했다.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 이근희 컬렉션에 포함된 작가이고 그림 한 점에 수십억 원을 호

가하지만, 당시엔 초상화 한 점에 6달러를 받았다고 한다. 그 시절 박수근의 모습은 박완서 작가의 등단작 『나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소설 속 화가 옥희도의 모델이 박수근이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의 박수근 전시 때도 그의 ‘미군 시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박성남 옹은 “아버지는 내게 ‘남자로 서 성공하라’는 뜻의 성남(成男)이란 이름을 주셨지만, (내가) 흙 토 변을 붙인 재성(城)자로 바꿨다”며 “아버지 이름을 빛내는 도량이 되는 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 표지석은 아버지라는 불꽃을 영원히 피우고 싶은 내 마음의 제”라고 덧붙였다. [전수진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우리말 바꾸기

‘것이다’ 투는 불편하다

아는 사람이 책을 냈다. 그는 책에서 ‘것이다’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것이다’는 문장에서 몇 가지 기능을 한다. “담배는 해로운 것이다.” ‘담배는 해롭다’를 이렇게 쓰면 더 강하게 느껴진다. ‘것이다’는 강조하면서 설명한다. 다음 같은 문장에서 더 확연히 드러난다. “울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것이다.” ‘것이다’가 있어 왜 울었는지가 선명하다. 그렇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 울었다”처럼 썼다. 뭐가 더 나을까. 그런 건 없다. 상황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르다. 선택은 자유다. “아픔은 다 잊었을 것이다.” 이 문장은 짐작이고 예상이다. ‘것이다’는 ‘추측’을 나타낼 때도 흔하게 쓰인다. ‘것이다’가 들어간 이런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픔은 다 잊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다.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시하는 것처럼 읽힌다. ‘것이다’는 지시나 명령, 훈계의 뜻을 전하기도 한다. 그럴 의도가 없다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권유’하면 된다. ‘것이다’가 지나친 문장이 곳곳에 있다. ‘타당하다’는 걸 밝히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 늘어진다. “다수결로 정하는 게 타당하다”로 하면 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중앙칼럼

합정 조심해야 하는 ‘BNPL 서비스’



이은영
LA중앙일보
경제부 부장

이점은 거의 없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BNPL구매시 연체료, 이자율 폭탄 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여러 BNPL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출 더미 쌓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프터 페이, 클라나 등 일부 BNPL 서비스는 차용인이 ‘의무적 자동 지불’에 동의하도록 요구한다. 지불 기한이 되면 업체가 등록된 크레딧카드나 은행 계좌에 자동으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내게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BNPL의 깊은 함정은 능력 밖 지출이다. BNPL 서비스 이용자의 절반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매하고 있다고 답했다. BNPL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이점이 거의 없지만 고물가, 온라인 쇼핑 증가 등으로 인해 식료품 결제까지 소비자 생활에 빠르게 파고 들고 있다. BNPL의 성장은 곧 가계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킨다. 이 시점에 재정전문가들이 조언하는 가계 재정관리법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50(필요)/30(즐거운 소비)/20(저축)’ 전략이다. 50은 부채, 모기지, 렌트비, 식료품, 공과금, 양육비 등 생활비, 30은 외식, 취미, 여가, 체육관 멤버십, 영화, 콘서트 등 원하는 삶을 위한 소비다. 20은 저축과 부채 상환이다. 고전적인 재정관리법이지만 BNPL의 함정을 피하고 부채에 허덕이지 않는 건 고한 돈 관리법이다.

한국에서 소비 능력을 무제한으로 끌어올리는 마법의 열쇠는 무이자 할부 결제다. 큰맘 먹고 사야 하는 가전제품도, 백화점 고가 의류도 무이자 할부 서비스로 바로 손에 질 수 있다. 한국에선 8개 카드사가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부터 최대 12개월에서 최소 3개월까지 축소됐다.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면 고객이 낼 할부 수수료가 카드사 부담으로 전가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당분간 6~12개월 무이자 할부는 기대하기 힘든 모양새다. 반면 미국에서는 무이자 할부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구매는 지금 하고 돈은 나중에 내는 ‘BNPL(Buy Now Pay Later)’이다. 온라인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다양한 업체가 정한 할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단기 대출이다. 물건값을 매달 나눠 상환하는 방식은 한국 무이자 할부 크레딧카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크레딧카드 사용자들은 20%가 훌쩍 넘는 크레딧카드 고금리를 피해 BNPL로 몰리고 있다. 특히 크레딧 히스토리가 없어 크레딧카드 발급이 어려운 Z세대에게는 원하는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이다. 처음 소비자들은 콘서트 티켓이나 휴가비 지출 등에 이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그런데 최근 MZ세대 중심으로 음식, 콘택트렌즈, 쓰레기봉투 구매 등 생필품 지불 수단으로까지 확대됐다. 식료품 관련 BNPL 거래는 2023년 첫 2개월 동안

열린광장

‘걷기’ 속에 건강 있다



최청원
내과의사

사상의 가닥을 잡았고,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길렀다. 철학자 니체의 위대한 사상 역시 걷기를 통해 나왔다고 한다. 특히 산속의 숲길, 해변의 모래 위 걷기는 내면에 깊이 잠재해 있었던 맑은 샘물을 끌어올린다. 걷기를 통해 청정한 공기를 몸의 각 장기에 공급하면 내면을 일깨우고 치유의 여정을 갖는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순간 온몸에서 호흡이 순환하며 면역 체계가 재조율되어 생기가 되살아난다고 한다. 이는 엔도르핀의 분비가 향진된 결과로도 설명한다. 의학적으로 엔도르핀이 생성 촉진되는

주위의 많은 사람이 노년의 건강 유지법으로 걷기를 선택하고 있다. 공원길, 오솔길, 등산길 등 다양한 곳이 있지만 어느 곳이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 걷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 걷기는 쉬고 있던 몸 근육에 유연한 움직임을 주어 근육 발달과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된다. 또 칼로리 소모로 몸무게 유지에도 좋다. 성인이 한 시간을 걸으면 205칼로리가 소모된다. 이는 자전거(300), 줌바춤(400), 농구(580), 미식축구(590), 마라톤(600)보다는 소모되는 칼로리가 적지만 두 시간 걸으면 격렬한 농구를 30~40분 한 것과 같은 운동 효과가 있다. 걷기에는 정신적인 이득도 있다. 걸으면 잡념이 적어지고,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마음을 맑고 굳건히 하기 위해 걷기를 즐겼다. 걷기를 통해 막연한 불안과 혐오를 이겨내고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고 생각의 깊이를 더했다고 한다. 철학자 칸트는 산책하면서 추상적인 개념과

경우는 약간 빠른 걸음, 명상, 웃음, 음악 연주, 햇빛, 인간이나 사물에 대한 좋은 감정, 성적인 접촉 등의 경우다. 해변이나 산길 등을 걸으면 엔도르핀의 생성 조건 중 많은 부분을 갖게 된다. 숲속 나무 사이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 해변 몽돌들이 파도에 서로 부딪히며 생기는 부드러운 소리를 듣는 것은 치유의 손길이 될 수도 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마다 지구의 일부인 흙과 잎맞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더 나아가 지구와 자연과 아니 우주와의 접촉이라 생각한다면 걷는 것 자체가 경이롭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건강을 위해 걷자. 걸음 자체가 아름답고 신비롭다는 개념 속에서 동네 골목길이든 산길이나 숲길, 혹은 해변 모래사장 길이든 주어진 상황에서 걸어보자. 육체와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 하루에 최소 5000보 내지 1만보는 걸으며 건강을 유지하자.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빌딩3층

빛나는 당신을 위한 특별한 순간 - 반지천국 진주보석쇼

Rings Heaven

50% 특별세일!

한여름의 주얼리 페스티벌

한여름 패션의 완성! 선글라스 공짜선물팡팡!!

여름을 더욱 빛나게 해줄 쟁코의 특별한 선물을 놓치지 마세요!

300불 이상 제품 구매시 고급 선글라스 증정!

- ※ 선글라스는 선착순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1팀 1인 1회 1개 증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복 증정 하지 않습니다.
- ※ 선글라스 소진 시 다른 제품으로 선물이 대체될 수 있습니다.
- ※ 선글라스 공짜선물은 별도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여름보석 칼라스톤

1200세트 전격출시

무조건판다! 무조건반값!

2024 여름맞이 핵폭탄세일 \$88불코너!!

진주 귀걸이 / 펜던트 / 반지 / 브로치 등
2024 여름맞이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
인기짱! 최저 88불 코너에서 만나보세요!!

천연양식진주 / 인공프리미엄 핵진주 / 홍산호 / 각종 칼라스톤 /

타이슨스코너 일정

2024년 6월 27일(목) 부터 28일(금)까지 2일간
웨스틴 호텔 타이슨코너 The Westin Tysons Corner
지하 1층 도그우드룸 (Dogwood Room)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22043

볼티모아 일정

2024년 6월 29일(토)-30일(일), 단 2일간
장소: 베세토 백화점 지하 1층 특설매장
822 N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H마트 옆)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GIA SOPHIA Y KANG
GIA 진주보석 감정사
미국 GIA 진주보석 감정사 매니저가
고객님의 합리적인 쇼핑을 도와드립니다.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KOBE JEWEL GROUP HELENAIKO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끝!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할 곳: ce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6월의 추천투어
호주 & 뉴질랜드
 11박12일 10/14~10/25 \$3,790+항공
특전
 1. 전일정 4성급 이상 고급 호텔 숙박
 2. 향이 디너, 선상 뷔페 등 전통 럭셔리 식사
 3. 8대 불가사의의 반딧불 동굴 보트 투어 탑사
 4. 시드니 항구를 감상하는 디너 크루즈 포함
 5. 온천욕, 관광열차, 케이블카, 유람선 등 포함
\$100 off 6/30까지 예약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레나 고 703.663.8534
윤태웅

2024 크루즈
알래스카 \$1990~부터 (인사이드,항공포함)
 7박 8일 8/30~9/6
뉴잉글랜드 \$1190 (인사이드)
 9박10일 10/17~10/26
남부 카리브해 \$1390 (인사이드)
 12박13일 12/7~12/19

Wonderful TOUR 2024 Yearly Schedule

6/28~7/08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옐로스톤 3박 4일 \$1290+항공
 8/06~8/19 북유럽 4개국+발틱 3개국 13박14일 \$5990+항공
 8/09~8/19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4~8/19 여름방학특선 캐나다 록키 5박 6일 \$2290(항공포함)
 8/15~8/21 알래스카 일주 6박 7일 \$2990(항공포함)
 8/30~9/06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인사이드 \$1990~부터 (항공포함)
 발코니 \$2590~부터 (항공포함)
 8/30~9/02 노동절 특선 옐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9/02~9/13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9/10~9/2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9/18~9/26 정통 동유럽 8박 9일 \$3290+항공
 9/18~10/1 동유럽&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90+항공
 9/20~10/2 파노라마 서유럽 12박13일 \$3890+항공
 9/25~10/1 크로아티아 발칸 6박 7일 \$2890+항공
 9/23~10/2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490+항공
 9/24~10/4 고품격 고국일주 3차 10박11일 \$2990+항공
 9/25~10/5 그리스&튀르키예 10박11일 \$2890+항공
 10/03~10/16 독일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08~10/18 스페인&포르투갈 10박11일 \$3190+항공
 10/09~10/19 정통 서유럽 10박 11일 \$3490+항공
 10/14~10/25 호주&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10/15~10/25 고품격 고국일주 4차 10박11일 \$2990+항공
 10/17~10/30 프랑스 일주 13박14일 \$5690+항공
 10/17~10/26 캐나다&뉴잉글랜드 크루즈 9박10일 \$1190(인사이드)
 10/22~10/31 튀르키예 성지순례(소아시아 7교역) 8박 9일 \$1990+항공
 10/22~11/01 고품격 고국일주 5차(단풍특선) 10박11일 \$2990+항공
 10/29~11/08 산티아고 순례 10박11일 \$3590+항공
 11/12~11/25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13박14일(시내선) \$3980+항공
 11/15~11/25 이스라엘&요르단 10박11일 \$2980+항공
 11/27~12/01 추수감사절 특선 코스타리카 4박 5일 \$1190+항공
 12/07~12/19 남부카리브해 크루즈 12박13일 \$1390(인사이드)
 12/23~12/28 크리스마스 특선 파리 일주 5박 6일 \$2390+항공
 12/23~12/29 크리스마스 특선 이태리 일주 6박 7일 \$2390+항공

6월 북유럽 4개국
 세계 최대의 복지국가들로 구성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10박11일 6/28~7/8 \$5,290+항공

6월 캐나다 록키
 6/30~7/5 (독립기념일 특선)
 8/14~8/19 (여름방학 특선)
5박 6일 \$2,290 (항공포함)

8월 알래스카 일주
 마타누스카빙하, 콜럼비아대빙하, 엑시트 빙하모두 볼수 있는 기회!
6박 7일 8/15~8/21 \$2,990 (항공포함)

9월 영국일주
 잉글랜드&스코틀랜드&아일랜드
11박12일 9/2~9/13 \$5,890+항공

9월 정통 서유럽
 9/10~9/20 (마감)
 9/23~10/2 (마감)
10박11일 10/9~10/19 \$3,490+항공

9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9/18~10/1 \$4,390+항공

9월 파노라마 서유럽
 정통 서유럽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를 더했습니다.
12박13일 9/20~10/2 \$3,890+항공

9월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9/25~10/5 \$2,890+항공

10월 독일 일주
 괴테, 바흐 등 독일의 문학, 음악, 역사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
13박14일 10/3~10/16 \$5,690+항공

10월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10/8~10/18 \$3,190+항공

10월 프랑스 일주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둘러보는 여행!
13박14일 10/17~10/30 \$5,690+항공

11월 코스타리카
 전 국토가 국립공원, 중남미의 푸른 유토피아 생태관광
4박 5일 11/27~12/1 (추수감사절 특선) \$1,1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 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3차 9/24~10/4 (마감)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단풍특선)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 광양/하동/진주/거제/부산/울산 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특전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음식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서울 롯데호텔 / 전주 안원마을 라안호텔 / 여수 소노캄 / 거제 소노캄 부산 크렌드호텔 / 경주 라안호텔 / 속초 롯데리조트 / 제주 롯데호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 고국 1~5차 모두 제주 배고 다낭이나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고국+제주/다낭/일본 원하시는 일정으로 선택 가능

동남아 여행
 3박5일 방콕/파타야 \$590+항공
 3박5일 푸켓 \$599+항공
 3박5일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3박5일 대만 \$499+항공
 3박4일 대만 \$690+항공
 3박5일 싱가포르 \$790+항공
 한국 왕복 비용으로 대한항공 항공권+동남아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여행
 3박4일 동경 \$999+항공
 3박5일 오사카 \$999+항공
 8박9일 일본완전일주 \$2690+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부검진) 한국국적 남 \$700/여 \$750 미국국적 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부검진) 남 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부검진) 남/여 \$460
 현대삼성병원/서울백병원/가천대백병원

뉴욕 불꽃놀이 1박 2일 \$450
레치워스 나이아가라 핫킨스글렌 2박 3일 \$699
천성 몽파르쟁 몽트리올/퀘벡 노아의 방주 3박 4일 \$950
성극 다니엘 +아미쉬마켓 당일 \$199 7/11, 8/1 8/22, 9/19 10/17, 11/14

동부관광 탑여행사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월요일 3박 4일 \$899
 대행버스 출발: 7/8, 9/23, 10/21
뉴욕 1박 2일 \$399
뉴욕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월요일 2박 3일 \$650
 대행버스 출발: 7/22, 9/16, 10/7
뉴욕 컴버랜드 기차여행
 당일투어 \$159
 출발: 10/17(목), 18(금), 19(토), 24(목) 10/25(금), 26(토), 11/2(토)
 탑여행사 워싱턴디씨 \$100
 당일관광 루레이동굴 \$125

서부관광
미서부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일출발 \$145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옐로스톤 3박 4일 \$890+항공 월요일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월요일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uesday, June 18,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소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용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적인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자녀 취향보다는 안전 우선 고려해야

대학탐방 주의할 사항
대학 탐방, 즉 캠퍼스 투어는 사실 투어가 아니다. 자녀의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를 미리 살펴보는 대입 준비과정이다. 대학 탐방의 결과로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이 가려진다. 그래서 대입 과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수업시간에 들어가 보라', '기숙사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먹어보라', '투어 가이드에게 많이 물어보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다. 여기에 덧붙여 US뉴스 월드 리포트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소개했다.

기숙사 밖 대학촌 방문 필요
지역기후 살펴야 적응 쉬워
대학 탐방은 역시 너무 어려서도 안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된다. 다만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고 한 번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대학 탐방 결과로 희망 대학을 수정할 수도 있다.

기구는 어떨까
미국 북동부의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캠퍼스의 겨울은 무척 힘든 기구일 수 있다. 또한 텍사스지역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중 사계절이 완연한 북부 출신 학생이라면 여름에 텍사스 지역을 방문해 볼 것을 추천한다. 4월만 해도 북동부는 아직 춥다. 물론 가능성 있는 여러 캠퍼스중 모두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정 지역 대학을 갔을 때는 그곳은 최적적이고, 다른 대학은 그곳 날씨가 최악기임을 감안해야 한다. 이외에도 흐린 날씨에 적응이 안되는 경우, 사막 기후에 어려울 수도 있다.

기숙사도 보자
대학도 캠퍼스 투어에서 콘도 모델 하우스 같이 가장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기숙사 방으로 안내한다고 알려져 있다. 바로 옆 건물 보여주지 않는 기숙사 현관도 보고 와야 한다. 만약에 투어중 보여준 기숙사가 걸리면 더 이상 바

라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엔 후회하기에 너무 늦는다. 가끔적이면 식사 공간의 위생상태도 점검하고 오라. 길게는 4년을 살 곳이다.
또 다른 것은 1학년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서 인근 대학촌에 거주해야 하는 경우다. 우범지대에 대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주택 환경도 중요하다. 너무 집값이 비싸도 문제다.

운전하고 가라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에 캠퍼스 투어를 가게 될 경우 최소한 한번은 비행기를 이용하지 말고 자동차로 가보라고 권한다. 이런 경험은 실제 대학과 집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게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먼 곳에 있는 자녀가 걱정될 수도 있다. 하여간에 한 번쯤은 운전해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부지역 학생의 경우 동부의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집에서 출발해서 꼬박 하루가 걸린다. 중간에 비행기를 이용하고 나머지 구간에는 운전으로 이동하게 된다. 모두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너무 멀면 1년에 한번 얼굴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한인 옐런 송씨는 딸아이를 UIUC(일리노이주립 어바나샴페인)에 합격시키고 생각지도 않은 고민을 했다. 대략 11시간을 운전



희망 대학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캠퍼스의 위치다.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Open AI생성]

하고 가야 하는데 자신이 없었다고 전한다. 결국 졸업식때나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멀다는 현실 인식 외에도 특히 집으로 돌아올 때 차 안에서 가족끼리 방문했던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기회로 삼으라고 권한다. 바로 방문한 대학이니 평가가 쉽고 메모를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그동안 공부하면서 못했던 가족 여행을 겸하는 것도 좋다. 나중에 보면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코스 이탈 해보라
대학 탐방에 가면 학교에서 제공한 가이드가 정해진 코스를 돌며 정해진 대본을 외운다. 하지만 그 그룹에 끼어 있다고 항상 끝까지 같이 다닐 의무는 없다. 잠깐 코스에서 이탈해서 눈에 띄는, 관심이 끌리는 현장을 살펴보는 것

도 좋다. 정해진 그룹에서 빠졌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 나중에 합류해서 투어를 계속하면 된다. 경우에 따라선 이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른 학생에게서 솔직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별거 아니면 상관없지만 중요하다면 대학 탐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주변 환경도 살펴라
캠퍼스 투어와 관련해서 도시가 좋은 학생과 숲이 우거진 전원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선호 취향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도시를 좋아한다고 도시에 있으니 댄다는 식으로 리서치를 그만두면 안된다. 학교 주변을 둘러보라. 전문가들은 학교 캠퍼스와 경계선 지역 환경을 굳이 따진다. 막상 학교를 다니다 보면 캠퍼스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캠퍼스를 벗어날 수 있는데 너무 험악한 지역이라면 자녀 취향 보다는 안전을 따지는 것이 좋다. 장병희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출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라고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사건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우리 몸 안에 있는 신비한 시계

불면증에 시달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잘 모를 것이다. 밤늦게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누워서 눈을 감고 있어도 왜 잠이 오지 않을까. 며칠간 그렇게 잠을 설쳐서 피곤하기는 말할 수 없는데도 왜 눈이 떠지는 것일까. 잠 잘 자지 않는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들도 비슷한 질문을 많이 던질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불면증이 이상한 게 아니라 밤이 되면 다들 저절로 잠이 온다는 게 더 신기한 것이다. 특별히 고단하지 않아도 전깃불을 환히 켜놓더라도, 잘 시간이 되면 잠이 드는 리듬이 인체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간을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는 잠 잘 시간이라고 저절로 알아차린다. 해외여행으로 시차 적응에 고생해 본 사람은 다 잘 알 것이다. 우리 몸은 출발지의 시간을 따르고 있고, 도착지의 시간이 그와 다르면 거기에 즉시 적응하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해서 출발지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까?

인체의 신비로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점은 시간을 알아차리는 생체시계이다. 24시간을 주기로 신체의 여러 가지 기능과 상태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이라 명명하였다. 잠이 들고 깨는 것이 가장 명백한 내용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체온도 24시간을 주기로 소폭 진동하며, 각종 호르몬의 분배나 신진대사의 속도도 일주기 리듬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세균도 가지고 있는 생체 주기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나 다른 고등 동물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그런 리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다. 각종 꽃송이가 아침에 열리고 저녁에 오므라드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후계자였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식물학자 테오프라스토스가 기원전 4세기에 이미 보고하였다. 그런데 나팔꽃이 아침에 개화하는 것을 보고 해가 떠오르는 데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일주기 리듬은 그렇게 단순히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1729년 프랑스의 과학자 드메랑은 움직이는 식물 미모사의 활동 상황이 24시간을 주기로 변한다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 리듬이 온종일 깜깜한 곳에 두어도 계속 표출된다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주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일주기 리듬이 벌이나 초파리 등 곤충

잠 잘 시간 알려주는 생체시계 인간뿐 아니라 동·식물도 있어 지구 자전 주기에 적응해 진화 작동원리 아직 모르는 것 많아

에서도 발견되었다. 그 후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심지어 세균이나 이스트조자 신진대사의 주기적 리듬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주기 리듬이란 용어는 1959년에 루마니아 출신의 미국 생물학자 할버그가 창안해 냈다.

왜 이렇게 각종 생물의 생리가 주기성을 지니게 되었을까? 좀 막연하지만,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면서 해가 뜨고 지는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 순조롭게 적응해서 살도록 생물들이 진화했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몸에 내재한 생물학적 시계는 자체적으로 작동하지만 지구 위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외부적 신호를 며칠간 받으면서 시차를 다시 맞추는 시차 적응이 된다.

그러나 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가장 신기한 것은,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차단한 상태에서 표출되는 인간의 일주기 리듬의 주기는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 정도라고 한다. 참문 없는 방에 사람을 넣은 후 온종일 모든 환경을 변화 없이 유지해 주었을 때 24시간마다가 아니라 약 25시간마다 잠이 들고, 다른 신체 기능도 더 길어짐 그 리듬을 따른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진화가 되었단 말인가? 게다가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쥐와 같은 야행성 동물의 자체적 리듬은 24시간보다 더 짧다고 한다. 또 우리 몸이 가진 정규적 리듬은 24시간의 일주기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 1초 정도의 주기로 박동하는 심장부터 음력으로 한 달 주기로 돌아오

는 여성들의 월경까지 온갖 작용이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세포 내 생화학적 작용

그러한 리듬들이 어떻게 해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많이 진전되었지만, 아직도 확실하지는 않다. 일주기 리듬에 관하여 현재 가장 정설로 간주하는 것은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작용에 관한 이론이다. DNA 내에 그런 주기성을 주관하는 유전자가 있다. 그 유전자가 생산하는 특정 단백질이 있고, 세포 내에 그 단백질의 함량이 높아지면 그것의 생산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다. 그런 상호작용의 피드백을 통해 주기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꼭 DNA와 관련된 것만도 아니고, DNA도 없는 적혈구 세포의 기능도 일주기 리듬을 따른다고 한다. 유전자의 발현보다 더 단순한 생화학적 리듬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단세포 차원에서 생물의 리듬이 생긴다는 것을 놀라운 일이고, 화학 반응이 주기적일 수 있다는 것은 더욱 신기하다. 그렇다면 생물의 삶이 따지고 보면 결국 화학적이라는 환원론적 함의를 도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분자들도 시간을 쫓 수 있는 감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무리일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시계의 작동원리는 추의 진동 등 물리적인 것이지만 생물학적 원리는 아니다. 그런데 시간을 안다는 것은 인간과 같은 지성과 감성을 가진 동물의 근본적 본성이기도 하다. 우주는 그렇게 여러 차원이 미묘하게 엮여있는 것인가. 과학이 밝혀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으며, 우리 몸 자체부터 그렇게 신비롭다.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교수

창의적인 사고 키워져 '성공'

미국도 많은 학생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해외 유학을 떠난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큰 유학 비용을 해외 유학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다. 최근 발표된 몇 건의 연구 결과는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이다. 연구는 타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매우 복잡하고 유연하며 창의적인 사고에 능하며 그 결과 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의 윌리엄 매덕스 교수는 MBA 프로그램

에 재학 중인 해외 유학생을 대상으로 타국에서의 유학생들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서 매덕스 교수는 다문화 활동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유학생일수록 복잡한 정보를 종합하는 사고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외국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지닌 유학생이 개별 생각을 더욱 능숙하게 연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덕스 교수는 다양하게 국제 경험을 쌓은 학생이 상대적

으로 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우수한 능력이 졸업 후 인생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들이 다른 일반 학생들에 비해 MBA 프로그램 졸업 후 훨씬 많은 숫자의 기업체로부터 일자리 제의를 받고 있으며 더욱 활발하게 창업 활동을 준비하고 일터에서도 빠른 속도로 승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경영대학의 안젤라 룡 교수 역시 매덕스 교수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룡 교수는 해외 거주 심리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개념을 연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능력이 해외에서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절로 배양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그는 오히려 이러한 능력은 실질적인 타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선 두 연구 결과가 이미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해외 유학을 떠났을 수도 있다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의문을 가진 플로리다 대학의 데이비드 교수는 세 그룹의 학생 집단을 조직하고 이들의 창의력

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첫 번째 그룹은 실제로 해외 유학을 경험한 사람으로, 두 번째는 유학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다녀오지 않은 사람으로, 마지막 그룹은 유학할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유학을 다녀온 적도 없는 사람으로 채웠다. 그리고 이 세 그룹의 창의력을 측정할 결과, 첫 번째 그룹이 다른 두 그룹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낸 사실을 발견했다. 유학의 효용이 실제로 증명된 것이다. 외래 문화를 기꺼이 배우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 한 타국에서의 유학이나 해외 근무 경험은 당신의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병희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 안 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장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 (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 www.joylawgroup.com

Joy Law Group, PLLC.

(Eng/Kor) (구원땡땡) (한국어 상담)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뉴욕 오피스 **646-256-9156(Kor) | 212-739-0843(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AI도 각자 MBTI가 있을까? 떠오르는 '인공지능 심리학'

최근 인공지능(AI)은 괄목할 만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말 GPT3.5가 나왔을 때의 놀라움은 벌써 과거의 것이 되었다. 불과 1년 반이 지난 지금 우리는 GPT-4o를 통해 인공지능에게 화면을 보여주면서 함께 수다를 떨게 됐다. 또 프로그램 생성, 발표 자료 만들기, 시나리오 작성 등에서 전보다 훨씬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 좋고, 더 빠른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한 방향이라면 최근 연구의 경향 중 재미있는 것은 인공지능 심리학 분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심리학은 말 그대로 인공지능에 대해 심리학적 고찰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과 관련된 심리학을 연구한 적은 있지만, 기계와 관련해 심리학을 연구한 적은 없을 것이다.

반대만 하거나 아부만 하게 할 수도 인간은 산업혁명 당시 공장을 세우면서 증기, 전기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후 우리는 이 기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할 지를 고민해왔다. 하지만 이 기계들의 심리에 대해 궁금해 한 적은 없다. 지금도 더 성능이 향상된 컴퓨터, 스마트폰,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이 기기들에도 심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GPT 등장 후 우리는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의 심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도 각자 MBTI가 다를까? 인공지능도 인종, 남녀, 나이, 부의 정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을까? 이런 연구는 단순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 또 인공지능 팀원, 학습 도우미, 감성 도우미 등을 구성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딥러닝의 발달 후 인공지능은 수많은 파라미터와 그것을 처리하는 숫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지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과를 만드는지 모른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넣어준 데이터에 의해 학습하고 있고 그 학습된 결과에 따라 통계적 결과를 보여준

다. 인간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학습 도구에 의해 학습되었는지에 따라 성향과 심리가 정해지듯이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우리가 인간의 마음속을 볼 수 없기에 인간의 행동을 통해 연구하듯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방식 또한 행동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물론 인공지능 심리학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심리 연구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남녀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기분 나빠 하지만 사람을 상대할 때보다 덜 하다. 또 서빙 로봇과 사람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호텔의 연구에 따르면 손님들이 서빙 로봇을 경험한 이후 사람 종업원에게 기존보다 예의 없이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심리 자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다. 먼저 소개하는 연구는 올해 4월 네이처의 인간행동 분야에 소개된 논문 '거대언어 모델(LLM)과 인간의 마음 이론 테스트'(Nature Human Behaviour, 2024)로 마음 이론에 관한 것이다. 마음 이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이해와 행동을 통해 사회를 이루고 상호 교류하고 지식을 발전시켜 왔다. 마음 이론의 실험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잘못된 믿음' 실험 시나리오인 다음과 같다.

"샬리와 애나가 함께 방에서 놓고 있었어요. 샬리는 자신이 갖고 놀던 구슬을 바구니에 넣고 잠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동안 애나는 그 구슬을 꺼내어 놀다가 자신의 상자에 넣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샬리는 돌아와서 자신의 구슬을 갖고 다시 놓고 싶었어요. 샬리는 구슬을 꺼내기 위해 어디를 볼까요?"

정답은 '샬리의 바구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록 구슬이 샬리의 바구니에 있지만 샬리와 애나가 함께 방에서 놓고 있었어요. 샬리는 자신이 갖고 놀던 구슬을 바구니에 넣고 잠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동안 애나는 그 구슬을 꺼내어 놀다가 자신의 상자에 넣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샬리는 돌아와서 자신의 구슬을 갖고 다시 놓고 싶었어요. 샬리는 구슬을 꺼내기 위해 어디를 볼까요?"

하지만 GPT 등장 후 우리는 처음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의 심리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도 각자 MBTI가 다를까? 인공지능도 인종, 남녀, 나이, 부의 정도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을까? 이런 연구는 단순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인공지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 또 인공지능 팀원, 학습 도우미, 감성 도우미 등을 구성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물론 인공지능 심리학에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심리 연구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사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남녀 차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기분 나빠 하지만 사람을 상대할 때보다 덜 하다. 또 서빙 로봇과 사람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호텔의 연구에 따르면 손님들이 서빙 로봇을 경험한 이후 사람 종업원에게 기존보다 예의 없이 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심리 자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다. 먼저 소개하는 연구는 올해 4월 네이처의 인간행동 분야에 소개된 논문 '거대언어 모델(LLM)과 인간의 마음 이론 테스트'(Nature Human Behaviour, 2024)로 마음 이론에 관한 것이다. 마음 이론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과 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이해와 행동을 통해 사회를 이루고 상호 교류하고 지식을 발전시켜 왔다. 마음 이론의 실험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잘못된 믿음' 실험 시나리오인 다음과 같다.

"샬리와 애나가 함께 방에서 놓고 있었어요. 샬리는 자신이 갖고 놀던 구슬을 바구니에 넣고 잠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동안 애나는 그 구슬을 꺼내어 놀다가 자신의 상자에 넣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샬리는 돌아와서 자신의 구슬을 갖고 다시 놓고 싶었어요. 샬리는 구슬을 꺼내기 위해 어디를 볼까요?"

정답은 '샬리의 바구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록 구슬이 샬리의 바구니에 있지만 샬리와 애나가 함께 방에서 놓고 있었어요. 샬리는 자신이 갖고 놀던 구슬을 바구니에 넣고 잠시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동안 애나는 그 구슬을 꺼내어 놀다가 자신의 상자에 넣었어요. 잠시 후 돌아온 샬리는 돌아와서 자신의 구슬을 갖고 다시 놓고 싶었어요. 샬리는 구슬을 꺼내기 위해 어디를 볼까요?"

지 않지만 (현실), 샬리의 입장에서 볼 때 구슬이 자신의 바구니에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자신이 구슬을 자기 바구니에 넣었기 때문이다. 현실과 다르지만 우리가 샬리의 믿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만 3세가 되면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사회적 인지성은 성인이 되면서 더 발달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실험들을 통해 다양한 LLM 모델들과 인간의 행동을 비교했다.

"놀랍도록 똑똑하고 충격적으로 어리석어" 다음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오류에 관한 실험이다. '인지 심리학을 통한 ChatGPT-3 연구'(PNAS, 2023)라는 논문이 실렸으며, 다음은 실험 내용의 일부이다

"린다는 31살의 독신 여성으로 직설적이며 아주 머리가 좋다. 그녀는 철학을 전공하였고, 학창 시절 차별과 사회적 정의 문제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반핵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질문: 다음 중 더 그럴듯한 그녀의 현재는?

A: 그녀는 은행원이다.
B: 그녀는 은행원이며 현재 페미니스트 운동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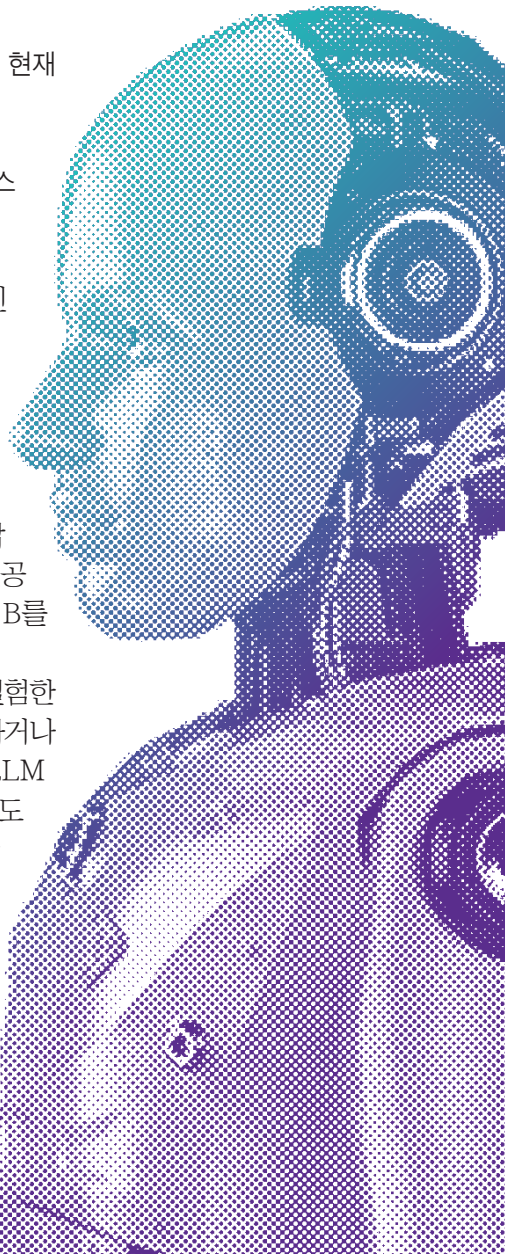
만약 당신이 B를 골랐다면 당신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 왜냐하면 B는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을 잘못 선택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응답자의 약 85%가 당신과 같은 답을 골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떨까? 역시 인간처럼 B를 선택했다.

많은 유사한 문제들을 통해 실험한 결과,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최신 LLM을 사용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인공지능이 단순한 '통계적 앵무새'이고 자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전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앞

의 실험들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유사한 시나리오들이 벌써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어서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것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학습된 대로 결과를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위의 연구에서도 같은 형태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면 인공지능이 황당한 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 이들의 주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GPT4.0 등 가장 최신 인공지능이 보여준 결과는 문제의 제시 방식을 바꿔도 인간보다 나은 결과를 꾸준히 내놓고 있어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에서 AI를 연구하고 있는 최재진 박사는 한 강연에서 AI에 대해 "놀랍도록 똑똑하고 충격적으로 어리석다"고 표현했다. 100% 공감하는 말이다. 앞으로 인공지능 심리학의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은 어느 부분이 놀랍도록 똑똑해 인간과 보장이 되는지, 어떤 면이 충격적으로 어리석어 사용에 주의해야 하는 지가 될 것이다.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팀

부동산 비키리와 함께하면 부동산에 안목이, 삶이 풍부해 집니다.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p>비엔나 타운홈</p> <p>방3+화3+차고2 2001년, 2100sf 겔로스트로드 던로딩 메트로 도보로 5분거리</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red;">\$970,000</p>	<p>페어팩스</p> <p>타운홈 방3+화3, 차고1 \$70만불대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85만불대</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red;">임대</p> <p>조지메이슨 대학부근 싱글홈 2층 넓고 환한 방1 임대: 여학생 환영</p>	<p>센터빌</p> <p>타운홈 방3+화3 \$45만불~\$60만불 타운홈 방3+화3, 차고1 \$60만불대 타운홈 방4+화3, 조지메이슨 대학 부근 \$630,000</p>
--------------------------------------------------------------------------------------------------------------------------------------------------	------------------------------------------------------------------------------------------------	-------------------------------------------------------------------------------------------------------	---------------------------------------------------------------------------------------------------------------------------------------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랑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red;">개인 세금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orange;">사업체 세금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green;">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	------------------------------------------------------------------------------------------------------------------------------------------------------------------------------------------------------------	-------------------------------------------------------------------------------------------------------------------------------------------------------------------------------------------------------------------------------

에듀 포스팅

고교 졸업생, 대학 입학까지 여유시간...여행·인턴십 등 자기계발 활용에 적기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볼 좋은 기회로 여름방학을 보내면 좋겠다. 입시의 긴장감을 풀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가 시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모두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그동안 입시 준비로 인해 자기 계발에 소홀했던 시간을 잘 활용하여 대학 입학 전까지 알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을 계획하든 배우는 것에 집중하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마중표를 잘 짚는 시기이며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 알아보자.

1. 자기 계발 계획 세우기

대학 입학 전에 전공을 바꿀 계획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 전공에 관련된 수업을 듣거나 혹은 컴퓨터 코딩을 배운다든지 등 자신이 필요한 혹은 부족한 과목들을 미리 배워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고 전공이 불확정한 학생이나 이미 전공이 정해진 학생 모두에게 아카데미에 대한 계획은 중요하다.

2. 여행 및 경험 쌓기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인 학생들은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을 여행하는 학생들이 많다. 모국을 방문하고 친지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계획이지만 다른 나라에 여행을 계획하는 것도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는 것은 대학 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은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으며 신입생들이 친구를 사귀는데도 좋은 대화거리가 되어 어색함을 떨칠 수 있다.

3. 대학 생활 준비

입학할 대학의 선배가 있다면 조언을 받아서 대학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학과 커리큘럼, 교수진, 동아리 활동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활동에 대하여 의논해 볼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어떤 기숙사에 따라선 필요한 것이 더 많을 수 있고 함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

4. 학업 리소스



기숙사 생활이 시작되면 부모를 떠나서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신입생들이 들어야 하는 과목 선정이나 전공 또는 학위 요건에 관련된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카데미에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 상담 등 다양한 고민거리들을 기숙사에 배치된 카운슬러들을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신 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5. 온라인 학습 플랫폼

Blackboard나 Canvas와 같은 대학의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런 플랫폼을 통하여 수업 자료에 접근하고 과제를 제출하고 교수와 급우와 소통하는 데 필수적이다.

6. 인턴십 프로그램

여름방학 인턴십은 매우 중요하며 신입생 첫 여름 인턴십부터 좋은 경험으로 인해 다음 해 더 좋은 인턴십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첫해 여름 인턴십 준비를 겨울방학부터 준비해야 한다. 많은 대학에서 지역 기업 및 조직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문 네트워크, 인맥, 교수 추천 등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7. 금융 관리

대학 생활의 재정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수 번 보스턴 에듀케이션 원장

대입 들여다보기

갈수록 경쟁 치열한 아이비리그 입학...나만의 강력한 서사와 개연성 있어야

아이비리그 예일대 역사상 올 가을학기 입시는 가장 경쟁이 치열했다.

지난 3월 28일 '아이비리그 데이'에 1365명의 학생이 예일대에 신입생으로 합격했고, 합격률은 역사상 최저치인 3.73%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4.35%보다 하락한 수치다.

전국에서 예일대에 원서를 넣은 학생들과 주위 사람들은 예일대의 결과 발표와 더불어 충격을 받았다. 매우 재능이 뛰어나고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학생들이 불합격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 이름을 날렸던 선배들이 고배를 마신 것을 보면서 11학년 및 10학년 학생들은 사기가 떨어지기도 한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도 합격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훌륭한 지원자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붙지 못하는 이유는 대략 3가지가 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비리그 입시가 능력 위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탑 대학이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학생만 뽑는다는 미신을 버려야 한다. 학업 능력이 우수하거나

과외활동의 성취가 높은 것 외에 다른 요소로 아이비리그에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적지 않다.

레거시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트 대학 중 실제로 레거시를 폐지한 곳은 극소수다. 예일대의 2023년 가을학기 신입생 중 11%는 레거시와 관련이 있었다. 3년 전의 8%보다 3%포인트 늘었다.

같은 시기 하버드대 신입생 가운데 약 3분의 1은 일종의 레거시 커넥션을 가지고 있었다. 2023년 연구조사에 따르면 레거시 학생들은 아이비리그와 다른 탑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비레거시 학생보다 약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훌륭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비슷한 스펙을 갖춘 레거시 학생과 경쟁한다면 비레거시 학생은 고배를 마실 것이다. 이 경우 원서의 내용과 다른 이유로 불합격되는 것이다.

둘째, 열정에 기반한 강력한 스토리가 없다면 최고의 성적만으로는 깊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아이비리그 입시에서 최고의 성적과 표준시험 점수는 거의 기본이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성적과 점수는 탑 대학이 찾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매년 수천, 수만 개의 원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하버드대는 각 지원자가 가진 배경과 경험의 모든 면을 폭넓게 심사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탑 대학에 접수되는 원서가 5만개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에 초점을 맞춰 일일이 원서를 심사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 사정관의 눈길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원자가 주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뤄낸 스토리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연성이 있고 강력한 서사 말이다. 학생들은 GPA와 표준시험 점수를 최고로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외활동과 수업 선택에도 신경 써야 한다. 자신의 핵심적인 관심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원서를 쓸 때가 다가오면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생활할 학생의 모습을 원서에 그려내야 한다. 자신이 해온 과외활동의 리스트, 추천서, 에세이 등을

통해서 연결되는 이야기를 써야 한다. 학업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자신이 대학 캠퍼스에 가져올 독특한 가치를 증명할 수 없는 학생이라면, 탑 대학의 입시에서 탈락할 수 있다.

셋째, 좁은 시각을 가지면 성공하기 어렵다.

탑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드림스쿨을 오로지 아이비리그 및 아이비 플러스 대학으로 정하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이들 대학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할 대학 리스트도 거의 이들 대학으로 채운 다음 탑 대학의 입시에 더 인상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스스로 가정한 과외활동에만 포커스를 맞춘다. 자신이 실제로 즐기는 활동 대신 말이다.

그러나 탑 대학 입학사정관들은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레주메로 점철된 원서를 가려내는데 탁월하다. 학생이 정말 자신의 관심을 추구해 온 것이 아니라면 원서에 드러난다.

학생들은 구체적인 관심사를 통해 무엇이 자신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왔는지 원서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빈센트 김·카운슬러 어드미션 마스터즈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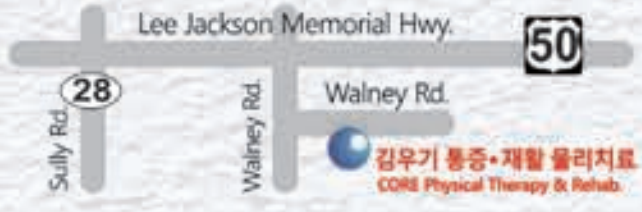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공유 똑 닮은 목소리가 AI? '원더랜드' 감독도 놀랐다

시골 노부부가 자신들을 찾아온 저승사자들을 호박죽으로 피어 살해한다. 저승사자를 파묻은 호박농장은 점차 악령 들린 호박들의 지옥이 된다. 올 2월 제1회 두바이 국제 AI(인공지능) 영화제에서 전 세계 500여편 출품작 중 대상·관객상의 2관왕을 차지한 권한솔 감독의 단편 '원 모어 펌킨'이다.

다채로운 저승사자·호박 귀신들의 모습부터 주인공 노부부까지 모든 장면과 사운드를 권 감독이 배우도, 실사 촬영도, 컴퓨터 그래픽(CG)도 없이, 생성형 AI로 단 5일 만에 완성했다.

주류 영화·드라마에도 생성형 AI 도입은 현실이 됐다. 영화 '원더랜드'(5일 개봉)는 보고 싶은 가족·연인을 AI로 복원해 영상통화로 만난다는 설정에 맞춰, 제작 과정에도 AI 기술을 활용했다. AI 캐릭터 성준의 일부 대사를 생성형 AI 기술로 배우 공유 목소리를 복제해 만들었다. 김태용 감독은 "4년 전 촬영 때만 해도 꿈도 못꿨던 AI 음성 복제가 지난달부터 가능해졌다. 테스트해보니 공유 목소리가 똑같이 재현돼서 배우 동의를 구해 숨은 재미로 넣어왔다"고 말했다.

영화 촬영 후 식도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배우 이열의 일부 장면을 생성형 AI로 만들기도 했다. 김 감독은 "극 중 이열 배우의 젊은 시절 모습은 생성형 AI로 만들었다"면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배우가 젊게 분장하거나 대역을 써야 했는데 지금은 AI 작업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더 진짜같이 만드는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성형 AI는 제작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2회에서 희귀병을 앓는 주인공 흥해인(김지원)이 눈 덮



1 영화 '원더랜드'에서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한 세상에 존재하는 AI 캐릭터 성준(공유). 2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권한솔 감독의 단편영화 '원 모어 펌킨'. [사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BIFAN, CJ뉴스룸]

인 자작나무 숲을 걷는 환각 장면도 생성형 AI로 빚어냈다. 한겨울 스위스 알프스 깊은 산속에서 찍은 듯한 장면이지만, 실제 촬영은 경기도 파주의 CJ ENM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했다.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생성형 AI 활용은 도입 단계지만, 세계적으로는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는 지난해 미국 배우 조합이 4개월 간 파업 끝에 할리우드 스튜디오들과 합의한 주요 쟁점에도 포함됐다. 제작자가 생성형 AI에 배우의 식별 가능한 특징·목소리 등을 학습시킬 경우 정당한 동의의 절차 및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지난달 칸 국제영화제 기간에 열린 칸 필름마



켓의 최대 화두도 AI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가 차세대 스토리텔링을 강화하는 법'을 주제로 열린 현지 콘퍼런스에서 현재 수준의 생성형 AI 기술만으로도 시나리오 PDF 파일을 업로드 하면 시놉시스 구조 분석, 적합한 로케이션 및 배

우 추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영화제들도 생성형 AI를 주목하고 있다. 15~16일 경상북도가 국내 첫 AI·메타버스 영화제를 개최했고, 부산 영화의전당도 오는 11월 AI 국제영화제를 준비 중이다. 내달 4일 개막하는 제28회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AI 영화 국제경쟁부문을 신설하고 전 세계 AI 영상 제작 전문가들을 초청해 콘퍼런스도 연다. AI 영화 제작 워크숍은 참가자 30명 모집에 600명 이상 신청자가 몰릴 만큼 관심이 뜨겁다. 부천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은 AI 영화 '원 모어 펌킨' 제작비가 "0원에 가까웠음"을 짚으며 "할리우드 영상산업이 세계를 지배한 요인의 본질은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였지만, 생성형 AI 시대의 영화는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성형 AI 도입의 한계와 우려도 존재한다. 올해 부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AI 영화 15편은 모두 상영시간 10분 이내의 초단편이다. "현재 AI 기술로는 이미지·캐릭터의 일관성을 길게 가져가기 어렵다. 가능성을 실험하는 단편 위주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영화제 측은 설명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물이 기존 창작물 및 개인의 초상권·목소리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할리우드 스타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달 챗GPT 운영사 오픈AI가 영화 '그녀'에서 AI 캐릭터를 연기한 자신의 목소리를 허락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천영화제 측은 "영화제 상영작은 일괄적으로 분쟁 소지를 검증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고 있다"면서 "AI 기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여서 (저작권·초상권 침해 이슈가 불거질까 봐) 긴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원정기자

무적함대 '신형 엔진' 야말 "경기 끝나면 학교 숙제 해야죠"

"당신은 열여섯 살 때 뭘하고 있었나요?" CNN은 16일(한국시간)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에서 스페인의 첫 승을 이끈 16세 '소년 에이스'의 활약상을 전하며 이런 질문을 던졌다. CNN이 주목한 소년은 바로 '제2의 메시'로 불리는 라민 야말(16·바르셀로나)이다.

'무적함대' 스페인은 이날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 슈타디온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알바로 모라타(32·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파비안 루이스(28·파리생제르맹), 다니 카르바할(32·레알 마드리드)의 연속 골을 앞세워 난적 크로아티아를 3-0으로 완파했다. 크로아티아는 2022 카타르월드컵에서 준우승한 나라다. 스페인은 강호 크로아티아 외에도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 '다크호스' 알바니아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B조를 이번 대회 '죽음의 조'라고 평

가한다. 이날 승리로 스페인(승점 3·골 득실 +3)은 이탈리아(승점 3·골 득실 +1)를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섰다.

야말은 이날 당당히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면서 대회 역사를 다시 썼다. 2007년 6월생으로 만 16세 338일인 야말은 대회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기록은 2021년 열린 유로 2020 당시 폴란드의 미드필더 카츠페르 코즐로프스키(21)가 작성한 17세 246일이었다. 야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반 47분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로 카르바할의 쇄기 골을 어시스트하며 최연소 공격 포인트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야말은 스페인 선수단의 막내지만, 사실상 에이스 대우를 받는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전담 키커로 나설 만큼 선배들에게 실력을 인정받았다. 역습 공격도 대부분 그를 통해 전개됐다. 바르셀

로나 유스팀 출신 야말은 왼발잡이로 드리블, 패스 능력에 축구 지능까지 뛰어난 '축구 천재'이다. 바르셀로나 출신 리오넬 메시(37·인터 마이애미)를 빼닮았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야말에 '원더키드'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하지만 그라운드 밖 야말은 학교 숙제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한국에선 고교 2학년에 해당하는 그는 이번 대회 기간 내내 축구와 학업을 병행한다. 야말은 스페인 AS를 통해 "유로 2024에 출전하기 위해 학교에서 내준 과제를 잔뜩 받아왔다. 온라인 강의도 들어야 한다. (제때 숙제를 마쳐서) 선생님들에게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같은 날 알바니아에 2-1로 승리했다. 이탈리아는 킥오프한 지 24초 만에 골을 내주고도 역전승을 거뒀다. 이탈리아는 스페인과 21일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피주영 기자



2007년 6월생인 야말은 유로 대회 최연소 출전 기록을 다시 썼다. [AP·연합뉴스]

+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교통사고
- 직장사고
-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친구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6월 구인광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구함
노임 전문 변호사

체불임금 80만불
받아내면 50%씩
나눠가지기로 합니다.

Looking for a lawyer
specializing in labor.

If we receive \$800,000
in unpaid wages,
we will split 50% each.

Glimck2@gmail.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I.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쥬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out of your mind; 정신 나가다

(Michelle is talking to Tami at home in the kitchen ...)

(미셸이 부엌에서 테미와 얘기한다...)

Michelle: So how was Las Vegas?
미셸: 라스베이거스는 어땠어?
Tami: We lost money but we had a ball.
테미: 돈을 잃긴 했지만 재미는 있었어.
Michelle: How much did you lose?
미셸: 얼마나 잃었는데?
Tami: Not much. I'm too big a chicken.
테미: 별로 많진 않아. 난 겁이 많아서.
Michelle: What is so fun about losing money?

미셸: 돈 잃는게 뭐 그리 재미있어?
Tami: It's exciting!
테미: 손에 땀을 쥐게 하잖아!
Michelle: Are you out of your mind?
미셸: 너 정신 나갔니?
Tami: I mean Las Vegas is exciting. There is always something to do.
테미: 라스베이거스는 신나는 곳이야. 언제라도 뭔가 할 게 있잖아.

Michelle: Did you see a show?
미셸: 쇼를 본 거야?
Tami: No, we thought they were overpriced.
테미: 아니 우리 모두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
기억할만한 표현
▶ have a ball: 신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We had a ball at the barbecue. It was so much fun."
(바비큐에서 우린 아주 신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재미 있었어요.)
▶ a chicken: 겁장이
"I was a chicken. I didn't want to go rock climbing."
(전 겁쟁이었죠. 암벽 등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 (something) is overpriced: 비싸다
"The furniture in that store is so overpriced."
(그 가게의 가구는 너무 비쌉니다.)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가로 열쇠

(1)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샜. ~ 작업 (2)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4)영화나 TV에서 읽을 수 있도록 화면에 비추는 글자 (5)천둥이 칠 때 나는 소리 (6)빨주노초과남보 (7)몹시 슬프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9)균제고 씹씩한 기운. 그는 ~를 내어 그녀에게 청혼을 했다 (10)아주 조금 움직임 (12)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 과리가 방 안에서 ~을 돌고 있다 (14)발전하거나 진보되지 않고 예전의 묵은 모습 그대로임 (16)여러 해 묵어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나 사물. 고물 (18)실, 끈 따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이룬 것 (19)아주 묽게 끈 것 (21)소나무나 잣나무에서 분비되는 끈적끈적한 액

체 (22)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잠 (24)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 먹고 사는 벌레 (25)길 가에서 손을 들고 서 있으면 이차가 와서 섭니다 (26)식물이 잘 자라도록 주는 물질. 퇴비 (27)혼례 후에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보내 주는 음식 (28)통성명할 때 주고받는 것

●세로 열쇠

(1)쇠로 만든 낮은 족.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 (2)태양에서 넷째로 가까운 행성 (3)약품 따위를 안개처럼 뿜어내는 도구 (4)겨드랑이나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5)사람을 매수하기 위하여 넌지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품 (8)산비탈에 쌓여 있던 눈이 갑자기 대량

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현상 (9)화산의 분화구에서 분출된 마그마 (11)같은 목적으로 한패를 이룬 무리. 서클 (12)그을음이 섞인 연기 (13)물체의 평평한 밑면. 물탱크 ~을 청소하고 있다 (14)무엇을 씻거나 빨거나 하여 더러워진 물 (15)다리가 없는 사람에게 인공으로 만들어 붙이는 다리 (16)귀찮고 힘든 남의 뒤치다꺼리. 누나가 의붓아버지의 ~을 치느라 고생이 많다 (17)눈시울에 생기는 작은 부스럼 (18)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팔려 동이 남 (20)보리를 싹틔게 한 후 말린 것 (21)소나무 잎을 갈아 먹는 벌레 (22)일할 때 또는 추위를 막기 위하여 팔뚝에 끼는 것 (23)물속으로 다니는 배 (25)집을 지을 땅

스도쿠

			2		8		3	7
	6			3			1	
			9	6				8
1				7		8		2
8		6		9				3
5				1	2			
	3			8			4	
9	7		6		5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1	8	3	5	4	9	2	7	6
5	4	2	6	8	7	1	3	9
9	7	6	2	1	3	4	8	5
3	5	7	4	6	1	9	2	8
4	9	1	3	2	8	5	6	7
2	6	8	9	7	5	3	4	1
8	2	4	1	9	6	7	5	3
6	1	5	7	3	4	8	9	2
7	3	9	8	5	2	6	1	4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유효 3자리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 L.A
- 애틀랜타
- 기타 지역
- 매매
- 매매
- 구인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 가 3만5천
 년매 8만 (310)936-8925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요망
 (949)422-8332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속식제공
 알래스카 주노지역
 (907)209-1920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674-7000

개인 / 비지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헛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손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꿈 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르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유효율 95%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타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로 살매
천공상상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증정품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퍼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성민산삼한방병원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희노씨]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대한민국 100대 프랜차이즈" JAWS TOPOKKI Franchise Partner 모집

KOREAN STREET FOOD의 대명사 '쫄면 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바르다 김선생'
 복합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안에서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미국 JAWS BUSINESS를 함께 하실 파트너 분을 초대합니다.

A. AR (Area Representative) 모집
 해당 State에서 JAWS Business 가맹 사업을 총괄하실 Business Partner를 모집 합니다.
 (IL, NY, TX, MD, VA)
상담 문의 E-Mail : info.tpk@jawsfood.com C.P : 714-715-5595

B. 미국 매장 현황

1. The source Mall (CA)
2. LA K-Town (CA)
3. Balboa H-mart San Diego (CA)
4. Johns Creek (GA)
5. Suwanee (GA)
6. Mall Corners (GA)
7. Tampa Lotte Mart (FL)
8. Haven City Rancho Cucamonga (CA) 7월 오픈
9. Palisades Park (NJ) 7월 오픈
10. Irvine H-mart (CA) 7월 오픈
11. Haven City West Covina (CA) 8월 오픈
12. Urbana H-mart (IL) 9월 오픈 (가맹 모집 중)
13. Orlando H-mart (FL) 10월 오픈
14. Seoul Street Anaheim (CA) 11월 오픈
15. Bonita Mall San Diego (CA) 11월 오픈
16. Harry Hines H-mart (TX) 11월 오픈 (가맹 모집 중)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